

부담없는 가격 무한한 레퍼토리의 보고(寶庫)
Naxos new rele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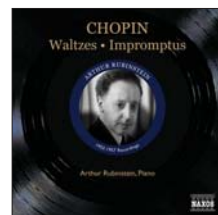
hot
issue



8.5596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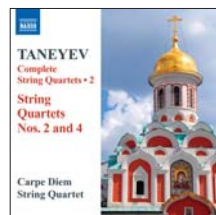
다니엘포어:
전주곡 1,2권 '마법의 정원'
시아인 왕(pf)

현재 미국에서 가장 주목 받는 작곡가의 한 사람인 리처드 다니엘 포어는 '마법의 정원'이라는 타이틀 아래 17년의 간격을 두고 피아노를 위한 전주곡을 두 세트 완성하였다. '어린 시절의 추억', '밤', '엘리지', '침묵과 의 교감', '겨울의 고독', '내 방에 유령이 있다' 등의 소재목들이 말해주듯, 꿈과 추억, 현실과 환상의 세계를 비교적 명료한 서법으로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8.111365

쇼팽: 왈츠, 즉흥곡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pf)



8.572421

타네예프:
현악사중주 2,4번
카르페 디엠 현악사중주단



8.572323

수크:
동화, 판타지, 환상적 스케르초
미카엘 루드비히(vn)
조안 팔레타
버팔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8.559654

18세기 미국 서곡집
(휴이트, 카, 리네이글)
패트릭 갈리와
신포니아 핀란드



8.570476

JC 바흐:
건반 소나타 Op.5
수잔 알렉산더-마스
(clavich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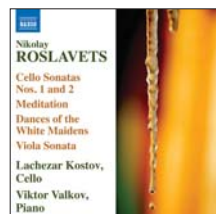
8.570210

롤라: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니퍼 스템(va)
코니 쉬(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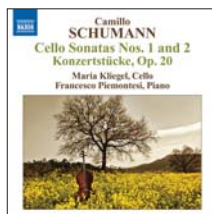
8.572260

할프레드:
영화음악 <카르멘>
마크 피츠-제랄드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



8.570996

로슬라베츠:
첼로소나타 1,2번, 명상곡 외
라체차르 코스토프(vc)
빅토르 발코프(pf)



8.572314

카밀로 슈만:
첼로소나타 1,2번,
콘체르트슈튀크 Op.20
마리아 클리겔(vc)
프란체스코 피에몬테시(pf)

"Delizie Musicali"

봄의
미각을 돋구는
아름다운
음악들



DM8001
H.F. 비버 & C.H. 비버:
트럼펫과 현을 위한
소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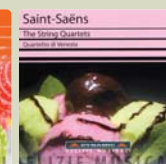
DM8002
푸르슈테나우:
프리메이슨을 위한 음악



DM8003
삼마르티니:
하프시코드협주곡, 플루
트협주곡, 오보에협주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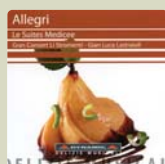
DM8004
몽테클레르:
트럼펫과 하프시코드
를 위한 협주곡



DM8005
생상:
현악사중주 1,2번



DM8006
네그리:
사랑의 미덕 (Le
Gratie d'Amore)



DM8007
알레그리:
메디치 모음곡



DM8008
레거:
3개의 비올라 모음곡,
바이올린소나타
Op.91-7



DM8009
파슈:
오보에협주곡, 2대의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
우베르튀르



CDS537/1-2(2CD)
카발리:
오페라 <라 디도네>

* Hot Issue

포크가수 인디언 수니 'Nostalgia'

클래식 사계 시리즈 음악풍경화 '사계'

국내 월드뮤직의 대명사 세상의 모든 음악 6집

** Cover Story

틸레만, 베토벤 교향곡을 철저히 해부하다

21세기 베토벤 사이클의 빅 이슈! 틸레만, 베토벤 교향곡을 철저히 해부하다

게르만 마에스트로 계보의 후계자로 각광 받고 있는 크리스티안 틸레만, 베토벤 교향곡에 대한 그의 모든 노하우를 이 영상물을 통해 만난다. 본 사이클에는 빈 무지크페라인에서 빈 필하모닉을 지휘한 베토벤 교향곡 전곡의 실황 영상과 더불어, 독일의 저명한 음악저널리스트 요아힘 카이저와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심도 있게 주고받는 작품해설과 틸레만의 연주를 카라얀, 번스타인, 파보 예르비 등의 다른 지휘자들의 해석과 직접 비교해볼 수 있게끔 배려된 흥미진진한 다큐멘터리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들에는 충실한 한글자막이 덧붙여 있기에, 누구든 이 영상물을 통해 베토벤 교향곡에 대한 보다 풍부한 지식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화질과 음질로 만나는 베토벤 교향곡 전집이자, 베토벤 교향곡들에 대한 가장 친절하고도 상세한 해설서로 모든 음악 애호가들께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틸레만은 실제 음악적인 실례들을 동원하여 대단히 자세하게 자신의 작품해석을 설명해나간다. 그 어떤 지휘자가 이토록 이해하기 쉽도록 이러한 작업을 했던 적이 있었던가? 그 어떤 음악레슨이나 콘서트를 통해 얻을 수 없었던 풍부하고도 값진 음악적 경험을 가능케 해줄 것이다.” — *Harald Reiter*



- 구성 : 콘서트 2 DVD + 다큐멘터리 1 DVD (한글자막 제공)
- 콘서트 + 다큐멘터리 1 Blu-ray (한글자막 제공)
- 세계 최고의 악단 빈 필과 21세기 지휘계의 총아 틸레만의 대 장정
- HD고화질과 5.0서라운드 사운드로 듣는 최신 미디어의 교향곡 사이클
- 황금빛 음향으로 울려 퍼지는 빈 무지크페라인 홀의 생생한 라이브 영상물(베토벤 교향곡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담은 다큐멘터리)
- 베토벤 교향곡에 대한 독일 원로 비평가 요하임 카이저와 크리스티안 틸레만의 심도 있는 분석 대담
- 푸르트벵글러, 카라얀, 번스타인 등의 과거 거장들의 연주들과의 직접 비교분석

틸레만과 빈 필하모닉의 베토벤 교향곡 전집 Vol.1

베토벤: 교향곡 1, 2, 3번, 코리올란서곡, 에그몬트 서곡

루트비히 판 베토벤은 1799년과 1800년 사이에 첫 교향곡을 썼고, 1800년 4월2일 빈에서 초연을 해서 대 성공을 거뒀다. 비록 그 작품이 청감상 여전히 모차르트와 하이든의 영향 하에 있지만,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교향곡에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요소들을 도입했다. 그 작품을 썼을 당시에는, 어둡속 청중들에게 처음부터 기본적인 개시부의 음을 남겨놓는 일이 작곡가에게는 아주 드문 일이었다.

베토벤은 두 번째 교향곡을 1801년과 1802년 사이에 작곡해, 자신의 지휘로 1803년 4월 5일 빈에서 초연했다. 이 작품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그가 청각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운명과 맞서 싸우면서 겪는 내적 갈등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많은 음악학자들은 이 두 번째 교향곡과, 베토벤이 초안으로 쓴(하지만 보내지는 않았다) 동시기의 유명한 편지, 즉 “하일리겐슈타트 유서” 사이에서 어떤



ADVD-018 (3DVS) Blu-ray C major 704804

틸레만과 빈 필하모닉의 베토벤 교향곡 전집 Vol.2

베토벤: 교향곡 4, 5, 6번

신비스럽게 주저하는 듯 하고 우울한 기분의 개시 부분을 제외하면, 1806년 가을에 완성된 베토벤의 교향곡 4번 B플랫 장조 op.60은 그의 가장 열정적이고 태평스러운 교향곡 가운데 하나다. 그 즐겁고 때때로 목가적이까지만 한 음향은 베토벤이 작품을 쓰는 동안 브른스비크 백작의 테레제와 사랑에 빠져있었다는 특별한 사실로 설명된다. 당시 베토벤은 일생에서 특별히 행복한 시기를 맞았었다. 베토벤 시대에 아주 인기 높았던 교향곡 4번에 대해서 슈만은 베토벤의 9개의 교향곡 가운데 가장 낭만적인 작품이라는 타당한 설명을 붙였다.



ADVD-019 (3DVS) Blu-ray C major 705004

교향곡 5번, op.67의 C단조 작품은 거의 틀림없이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인기 있는 교향곡일 것이다. 베토벤의 극적인 개시부 모티프는 “운명이 내 문을 어떻게 두드리는지를 보여준다”는 말로 설명되곤 한다. 그것은 음악적 줄거리의 나머지 전체를 결정짓는 일종의 라이트모티브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베토벤 교향곡 5번의 초기 스케치 흔적으로는 18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이미 1804년도 되지 않은 시점의 스코어에는 그가 부단히 남긴 작품골격의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된다. 베토벤은 1807년 4월부터 1808년 봄까지 이 스케치들을 정교하게 다듬는 일에 매진했다. 교향곡 9번을 제외하고, 베토벤은 어떤 다른 교향곡 작업을 할 때보다도 더 긴 시간을 할애해 이 교향곡 5번을 갈고 닦았는데, 그 결과 엄청난 정서적 감화 이상을 보여주는, 음악사에서 거의 독보적인 주제의 통일성과 집중력을 지닌 걸작이 되었다.

베토벤의 5번과 6번 교향곡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1803년부터 1808년까지 만 5년 동안, 베토벤은 대조되는 이 두 작품을 함께 놓고 작업했고, 약간의 차이를 두고는 있지만, 거의 동시에 두 작품을 완성했다. 스스로 그렇게 편안하고 평온한 심리상태였던 적이 없었고, 빈 근교를 장시간 산책하면서 그렇게 영감이 충만한 적이 없었던 것인데, 실로 그 시기의 여전히 오염되지 않은 자연의 그림이다. 교향곡 6번 F장조 op.68은 자연을 향한 끌어오르는 열정을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 안에서 베토벤은 악기들을 가지고 새소리, 시골길을 다니는 도시인의 발걸음, 졸졸 흐르는 시냇물과 폭풍우를 묘사한다. 그러한 자연주의는 음악사에서 완전히 혁신적인 것이었지만, 이것이 이 작품의 유일한 근본적 혁신은 아니다: 베토벤의 6번 교향곡은 4악장이 넘는 고전주의 교향곡으로는 첫 작품이었을 뿐만 아니라, 각 악장에 붙인 독일어로 된 문학적 표현의 부재는 이후 낭만주의 표제음악의 앞길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된다.

틸레만과 빈 필하모닉의 베토벤 교향곡 전집 Vol.3

베토벤: 교향곡 7, 8, 9번

1808년에 5번,6번 교향곡을 완성한 후, 베토벤은 다른 음악장르로 눈을 돌렸는데, 이후 4년도 채 안된 시점에 빈의 청중들은 그의 새로운 교향곡을 들을 수 있었다. A장조, op.92로 등재된 베토벤의 교향곡 7번에서 음악의 줄거리를 지배하는 것은 리듬이다. 첫 6개의 소절이 진행되는 동안 엄



ADVD-020 (3DVDs) Blu-ray C major 705204

출 수 없을 정도로 추진적인 리듬 패턴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는 작품의 나머지 전체를 지배하면서, 베토벤이 일으키는 폭발적인 에너지에 필수적인 형식의 구조를 제공한다. 많은 유명 작곡가들이 이 교향곡의 폭발력에 몇 가지 말들을 보태려고 했지만, 그들이 그런 말을 통해 얻은 성공은 별스럽지 않았다. 예컨대, 유명한 말이지만, 바그너는, 작품에 춤의 요소 같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을 “춤의 극치”로 묘사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칼 마리아 폰 베버는 두 개의 빠른 악장에 대한 반응으로, 베토벤이 “정신병원에 갈 때가 된”것이라 피력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일이 있었어도, 교향곡 7번은 처음부터 베토벤의 가장 영원한 성공작이고 전율적인 작품 중의 하나라는 사실이 입증되었고, 마음을 움직이는 장송행진 같은 알레그레토는 고전음악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악장 가운데 하나다.

베토벤은 1811년과 1812년에, op.93, F장조의 8번 교향곡을 7번 교향곡과 함께 썼다. 새로 쓴 작품은 이제까지 그가 썼던 교향곡들과는 현격한 대조를 보이는데, 그것은 형식의 구조를 전형적인 초기 고전주의로 회귀시켰다는 점을 특징으로 가름할 수 있겠다: 느린 악장은 알레그레토 스케르찬도로 대체되었고, 스케르초 대신에 하이든이나 모차르트의 교향곡이 지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메누에토를 부활시켰다는 점을 본다. 프로메테우스 같은 감정의 분출과 음향효과를 노린 혁신적 변혁의 음악들은 삶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고 청중들이 놀라서 입을 딱 벌리는 평온한 음악으로 전환되었는데, 때때로는 풍자적인 유머와 명청한 부르주아 계층의 독선에 대한 암시로 그득하게도 했다. 첫 공연 때는 이전 작품과 같은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는데, 베토벤은 “작품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덜 인정받았으며 분노 섞인 격려를 받아야 했다.

베토벤이 미디엄으로서 교향곡을 변모시키고 발전시킨 크기로 판단할 때, 우리는 획기적인 D장조, op.125의 9번 교향곡을 썼을 때까지는, 그 시대 교향곡들 위에 우뚝 선 작품이 3번 교향곡(“영웅”)이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내적인 깊이나 외적인 규모로 볼 때 가장 강력한 교향곡인 9번 교향곡에 대한 최초의 악상은 1812년에 기록되었지만, 1824년 그가 작품에 마지막 손질을 끝내기까지는 12년이란 세월을 보내야 했다. 첫 세 개의 악장들은 교향곡 분야의 노력에서 얻는 것으로는 최 정점의 위치에 있으며, 4,5악장에서 베토벤은 이전에 음악으로 상상할 수 있었던 어떤 것들도 모두 초월한 세계를 보여준다. 쉴러의 송가 “기쁨을 향해”를 가지고 작곡한 베토벤은 교향악의 세계에 인간의 목소리를 도입했고, 이 시대까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장렬한 감동으로, 모든 인류의 이상인 형제애에 대한 영원불멸의 표상을 남겼다.

To know & to experience...

21세기를 위한 베토벤 교향곡 사이클

“베토벤의 모든 교향곡들은 제각기 다른 세계를 펼쳐 보인다, 그리고 베토벤은 처음부터 이를 계획했었다” – 크리스티안 틸레만

수차례에 걸친 리허설과 세계각지에 걸친 연주여행 그리고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이어진 영상물녹화 세션에 이르기까지, 크리스티안 틸레만과 빈 필하모닉은 모든 면에서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베토벤 교향곡 사이클을 의심의 여지없이 완벽하게 해결하였다. 영상은 HD급의 고해상도로 촬영되었고, 음악 역시 5.0 채널의 서라운드 사운드로 녹음되었다.(음악적인 이유로 별도의 서브우퍼 채널은 채용되지 않았다) 그 결과는 HD급의 영상으로 선보이는 빈 필 최초의 베토벤 교향곡 전집일 뿐만 아니라, Blu-Ray 포맷으로 선보이는 최초의 베토벤 교향곡 전집이 만들어졌다. 전체 프로젝트는 3장의 Blu-Ray 또는 3조의 3장짜리 DVD세트 두 종류의 포맷으로 발매되었다.

크리스티안 틸레만의 베토벤 교향곡 사이클은 단순히 또 다른 지휘자의 예술적 관점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다. 지난 십여 년 동안 작은 편성의 오케스트라와 극단적인 빠른 템포 위주의 이른 바 탈-로맨틱 성향의 베토벤 교향곡 연주들이 범할 수 없는 강력한 대세를 이뤄왔지만, 크리스티안 틸레만(다니엘 바렌보임과 마리스 안손소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은 과거 푸르트벵글러와 같은 추억의 거장들이 고전과 낭만시대 관련 악 레퍼토리들에서 보여줬었던 풍부한 표정을 담은 풍요로운 음악을 복원하고자 노력하는 마치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왔었다. “작곡가들이 스코어에 적어놓지 않더라도 선율적인 프레이즈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들은 생겨나기 마련이다.” 빈에서 있었던 틸레만의 베토벤 교향곡 사이클 중의 한 콘서트에 대한 Die Presse 지(紙)의 한 연주평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러한 반응들을 탐구해나가는 것은 지난 과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베토벤 교향곡들의 뛰어난 레코딩은 항상 애호가들로부터 환영받는다. 특히 예외적이고도 일관적인 독창성을 갖춘 레코딩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거의 모든 지휘자들이 한 번 이상씩은 도전해왔을 이 영원한 결착들을 녹음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새롭고 독창적인 무언가를 추구할 수 있을까?

독일어권 음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저술가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요아힘 카이저와 함께, 틸레만은 대단히 인상적인 방법으로 이 질문에 대

답해주고 있다. 본 베토벤 사이클에 함께 수록된 각 교향곡들에 관한 아홉 편의 다큐멘터리들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틸레만의 열정이 만들어낸 의미심장한 해답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영상물의 제작기간 동안 카이저와 틸레만은 각 교향곡들의 배경은 물론, 작곡 당시의 베토벤의 상황이나 각 교향곡들에 대한 틸레만의 해석방식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틸레만은 실제 음악적인 실례들을 동원하여 대단히 자세하게 자신의 작품해석을 설명해나간다. – 예를 들면, ‘왜 오케스트라 전체에 대한 휴지부를 길게 가져갔는가?’ ‘왜 다른 패시지에서는 템포를 이렇게 변형시켰는가?’ 주요한 패시지들의 각각에서 틸레만은 자신의 해석방식과 그 해석의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으며, 곡 해석에 대한 테크닉적인 측면은 물론 그 뒤에 숨겨진 음악적인 아이디어들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그 어떤 지휘자가 이토록 이해하기 쉽도록 이러한 작업을 했던 적이 있었던가? 음악분석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흥미로움의 측면에서도 요아힘 카이저만한 대답자를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적합한 질문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감각은 그의 뛰어난 음악경력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그의 풍부한 음악적 지식은 본인이 음악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었던 지난 60여 년 동안 당대의 일급 베토벤 지휘자들과 직접 토의하면서 그리고 그들에 대해 수많은 글들을 쓰면서 체득했었던 것들이다.

두 사람의 대답만으로도 대단히 유익하지만, 이 다큐멘터리들은 음악애호가들을 즐겁게 할 또 다른 특징들도 가지고 있다. 특정 패시지들에 대한 틸레만의 해석은 푸르트벵글러, 카라얀, 번스타인과 같은 과거의 베토벤 거장들은 물론 파보 예르비와 같은 현 시대의 스타급 지휘자들의 해석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끔 배려되었다. 이러한 비교들을 통해 감상자들은 베토벤 교향곡들이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해설될 수 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그 어떤 음악레슨이나 콘서트를 통해 얻을 수 없었던 풍부하고도 값진 음악적 경험을 가능케 해줄 것이다.

글: Harald Reiter

요아힘 카이저

요아힘 카이저는 1928년 동부 프러시아 태생으로 60여 년간 독일어로 음악, 문학, 공연비평을 하며, 사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의 한사람으로 인정받아왔다. 그는 프랑크푸르터 헤프트(Frankfurter Hefte)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에 글을 쓰면서 작가의 경력을 시작했다. 1959년에 비평가가 되었고 이후 쾰른도이체 차이퉁(Suddeutsche Zeitung)에서 예술부문 담당 편집일을 했다. 1977년부터 1996년까지 슈투트가르트 음악 및 공연예술원의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의 선생 가운데는 테오도어 아도르노, 막스 호크하이머도 있는데, 그는 종종 전반교육을 받은 최후의 인물 중의 한사람으로 기술되기도 한다. 세계의 유명 음악인들과 작가 그리고 공연관계 인물들과 친분을 유지해온 그는 그들과 정규적으로 의견을 교환한다. 고전음악에 관해 그가 쓴 많은 책들은 모범서로 인정받는다. 60년이 넘는 지난 세월동안 요아힘 카이저는 콘서트에 참석해 빼어난 베토벤 지휘자의 공연을 거의 경험했고, 그 성과에 대해 글을 쓰고 그들 대부분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

크리스티안 틸레만

크리스티안 틸레만은 1959년 베를린에서 태어났다. 19세에 베를린 도이체 오퍼(Deutsche Oper)에서 코치로 음악직업전선에 뛰어들었고, 카라얀의 조수로 일하기도 했다. 1997년부터 2004년까지 도이체 오퍼의 총감독직을 수행했고 2004년 이후로는 뮌헨 필하모닉에서 비슷한 직책을 맡았다. 2012년 2013년 시즌이 시작되면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와 드레스덴 국립 오페라의 수석 지휘자로 일할 예정이다. 크리스티안 틸레만은 빈, 베를린, 뉴욕 그리고 암스테르담의 4대 주요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오페라 하우스에 정규적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다. CD와 DVD로 나온 그의 많은 레코딩은 비평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베토벤에서 후기 낭만주의까지의 독일 레퍼토리에 통통한 지휘자로 칭송 받고 있는 크리스티안 틸레만은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도 여러 번 특별한 성공을 거뒀으며, 그곳에서 수년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크리스티안 틸레만은 유니텔과 계약한 예술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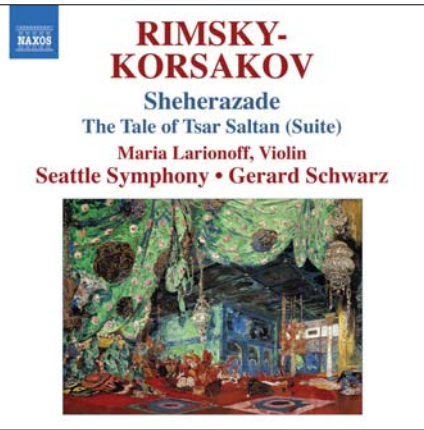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오케스트라 중의 하나이며 격조 높은 전통을 유지해왔다. 유명한 작곡가인 오토 니콜라이가 1842년에 창설했고, 오케스트라의 분명한 목표는 베토벤의 교향곡을 최고의 수준으로 연주해보려는 것이었다. 빈 필은 끊임없이 빈 고전주의의 독특한 사운드 세계의 영향을 받아왔다. 그 전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오케스트라는 다른 연주자들이 쓰지 않는 악기들을 사용하는데, 특히 두드러진 것은 금관악기와 타악기를 색션이다. 수석 지휘자를 두지 않는 것이 전통이고, 그 대신 위대한 지휘자들을 맞아 오랜 시간 동안 풍요로운 예술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한다. 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했던 인물에는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칼 뵘,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레너드 번스타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있는데, 그들과 함께 빈 필은 수많은 전설적인 공연을 열었고, 세계적 평판의 음반들을 만들어놓았다.



Nax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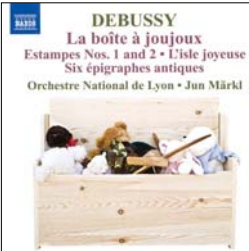
www.naxos.com



8.572693
림스카-코르사코프:
셰헤라자데, 살탄 황제 이야기 모음곡
제라르 슈워츠/ 시애틀 심포니 오케스트라
천일야화에 기초한 '셰헤라자데'는 근대 관현악법의 최고수 중 한 사람인 림스카-코르사코프의 대표 걸작이다. 신드바드의 모험, 칼렌더 공 이야기, 젊은 왕자와 공주, 바그다드의 축제의 네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젊은 왕자와 공주'는 김연아의 피겨스케이팅 배경음악으로도 낯익은 선율이다. 작곡가의 또 다른 인기작인 '왕벌의 비행'을 포함한 오페라 '살탄 황제 이야기'에서 발췌한 관현악 모음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2217
JCF 바흐:
교향곡 HW 1/6, 1.10, 1/20
모르텐 솔트-엔센
라이프치히 카메라오케스터
뷔케부르크의 바흐'라고 불리던 요한 크리스토프 프리드리히 바흐는 요한 제바스티안의 아들 때 아들로 20편의 교향곡을 비롯하여 협주곡, 실내악, 건반 작품 등에서 상당수의 작품을 완성하면서 가풍을 계승하였다. 음반에 수록된 세 교향곡은 이탈리아와 독일 두 나라의 양식이 결합된 형태의 작품으로, 18세기 후반 로코코 시대의 우아한 감흥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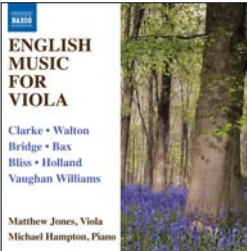
8.572568
드뷔시:
발레 <장난감상자>, 6개의 옛 비문 외 윤 매르클
리옹 국립 오케스트라
윤 매르클과 리옹 국립 오케스트라가 진행 중인 드뷔시 관현악 시리즈의 5번 째 음반. 자신의 딸 엠마를 위한 작품이었던 발레 '장난감상자'는 유명한 'Children's corner'를 연상케 하는 친진한 악상이 매력적인 작품이며, 지휘자 앙세르메가 오케스트레이션 한 피아노 연탄곡 '6개의 옛 비문'을 비롯하여 카를레, 몰리나리 등이 편곡한 판화, 기쁨의 섬, 바쿠스의 승리 등의 피아노작품 관현악 버전들이 함께 수록되었다.



8.559647
재즈 녹턴 (랩소디 인 블루, 니그로 랩소디, 밴조와 관현악을 위한 모음곡 외)
리처드 로젠버그/ 핫 스프링스 뮤직 페스티벌 심포니 오케스트라
20세기 전반기 재즈의 영향을 깊게 받았던 일군의 미국 작곡가들의 작품을 모은 음반. 거센의 출세작 '랩소디 인 블루'(피아노와 재즈밴드를 위한 오리지널 버전 최초의 완결 녹음) 외에도 여러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다나쉬스의 '재즈 녹턴'과 '세 가지 리듬의 협주곡', 흑인 작곡가 JP 존슨의 '니그로 랩소디', 위대한 밴조 연주자였던 해리 레저의 밴조와 관현악을 위한 모음곡 등을 수록하였다.



8.572158
마르케비치:
바흐 음악의 현정 관현악 편곡 크리스토퍼 린든-지 아른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낙소스의 이고르 마르케비치 관현악 시리즈의 마지막 음반. 마르케비치는 지휘에 앞서 작곡가로 활약하던 시절 바흐의 최후 완성작인 '음악의 현정' 전곡을 3개의 관현악 그룹과 4대의 독주 악기(vn, fl, vc, cemb)를 위주로 편곡하였다. 신 빈악파의 거물이었던 안톤 베베른이 편곡한 '음악의 현정' 중 6성부의 리체르카레가 유명하지만, 마르케비치의 창의적인 편곡 역시 일침의 가치가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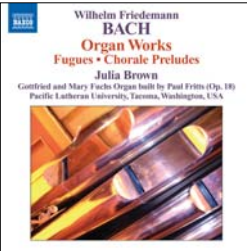
8.572579
비올라를 위한 영국 작품들 (클라크, 월튼, 브리지, 벅스 외)
매튜 존스(va)
마이클 햄튼(pf)
비올라는 오래도록 독주 악기로 무대접을 받아왔지만,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작곡가들이 이 악기의 폭 넓은 표현력에 다시금 주목하게 되었다. 본 음반에는 클라크, 월튼, 브리지, 벅스, 블리스, 본 윌리엄스, 홀랜드 등의 근현대 주요 영국 작곡가들이 비올라를 위해 완성한 작품 또는 연주자 매튜 존스가 비올라 용으로 편곡한 바이올린 작품 7편을 담고 있다.



8.570883
말리피에로:
3개의 골도니안 코메디, 라 치마로시야나, 가브리엘리아나 외 크리스티안 벤다
스위스 이탈리아어 방송 오케스트라
말리피에로의 작품 세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20세기 음악계 주류를 충실히 좇은 진보적인 스타일이고 다른 하나는 몬테베르디, 비발디 등의 자국 선배 작곡가들의 고풍스런 음악들에 대한 근대적인 오마주들이다. 음반에 수록된 작품들 중 3개의 곤돌리안 코메디와 스트라디바리오는 전자를, 치마로시아나와 가브리엘리아나는 후자를 대변하는 작품들이다.



8.572570
브리아스:
피아노협주곡, 헨델의 저녁기도 후 외
랄프 판 라트(pf)
오토 타우스크
카펠라 암스테르담 외
가빈 브리아스의 작품에 담긴 서정성은 다양한 음악사조들이 난립한 현대음악계에서도 유니크한 개성으로 받아들여진다. 피아노협주곡 'The Solway Canal'은 꿈처럼 몽환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인 작품이며, 'Ramble on Cortona'는 13세기 중세음악에서 차용한 선율에 피아노의 공명적인 특성을 부각시킨 작품이다. 'After Handel's Vesper'는 바로크 음악에 포스트 미니멀리즘을 결합시킨 개성적인 작품이다.



8.570571
WF 바흐:
오르간 작품집
줄리아 브라운(org)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장남인 빌헬름 프리데만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을 정도로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을 보여줬었지만, 성년에 들어서서는 성숙치 못한 인성으로 인해 말년이 불행했던 작곡가다. 아버지의 조언을 통해 스스로도 걸출한 오르간 명인으로 성장했는데, 작곡가로서도 상당수의 역작들을 후대에 남겼다. 특히 일부 작품에서 보여지는 고도의 대위법은 부전자전의 재능을 새삼 확인시켜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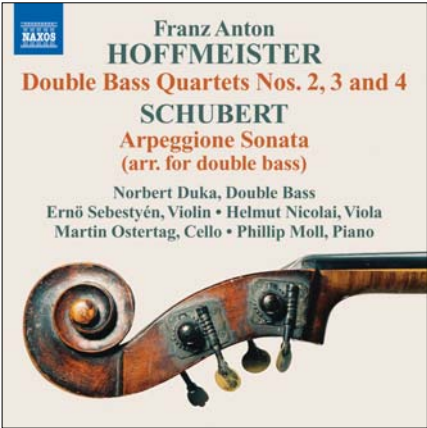
8.572029
리히터:
플루트, 하프시코드, 첼로를 위한 소나타 1집
파울리나 프레데(fi)
아포 헤기넨(cemb)
하이다 펠토니에미(vc)
초기 고전 교향곡의 대가 중 한 사람인 프란츠 크사버 리히터는 바로크시대의 트리오소나타 전통을 계승한 독특한 양식의 실내악 작품들을 다수 남겼다. 본 음반에 수록된 플루트, 하프시코드, 첼로를 위한 세 편의 소나타가 바로 이러한 스타일의 작품들이다. 대결과 조화를 교묘하게 오가는 각 성부들의 짜임새와 풍부하고도 표현적인 화성, 그리고 갑작스런 선율의 변화 등등 그의 음악적 개성들이 함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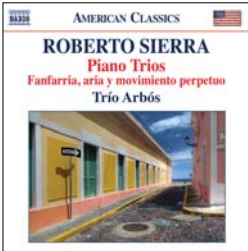
8.571268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26, 30, 32번
이딜 비렛(pf)
이딜 비렛은 포르테시모를 절제하는 가운데서도 큰 윤곽선을 그려나간다. 피아노 톤은 화려하며, 우아하고 심미적인 소노리티 역시 매력적이다. 누구나 이 연주들을 듣고 나면 비렛의 스승이 빌헬름 쾰프였다는 사실을 새삼 떠올리게 될 것이다.
- 그라모폰 -



8.572555
러브라:
현악사중주 1,3,4번
마기니 쿼텟
얼원에서 월튼에 이르는 여러 근현대 영국 작곡가들의 현악사중주 음반들을 통해 낙소스 실내악의 새로운 간판으로 부상한 마기니 쿼텟의 최신보, 호평을 받았던 2번에 이어서 에드문트 러브라의 나머지 세 현악사중주를 완결하였다. 초기작인 1번이나 후기작인 3,4번 모두 낙관적인 악상과 풍부한 표정을 머금은 러브라의 독특한 음악세계를 공유한다.



8.572187
호프마이스터:
더블베이스 쿼텟, 슈베르트: 아르페지오네소나타 노베르트 두카(유)
에르뇌 제베스티엔(vn)/ 필립 몰(pf)/ 헬무트 니콜라이(va) 외
호프마이스터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편성을 위해 작곡한 사중주곡들은 왜 그동안 더블베이스가 실내악편성에서 소외되었을 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 처음악기의 색다른 매력을 심본 과시한다. 아울러 연주자인 노베르트 두카 본인이 직접 더블베이스를 위해 편곡한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소나타도 색다른 별미 이상의 중후한 매력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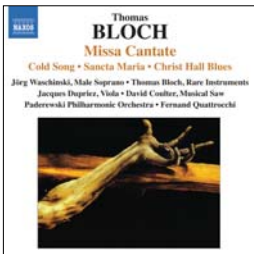


8.559611
시에라:
피아노 트리오 1-3번
트리오 아르보스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작곡가 로베르토 시에라는 함부르크에서 리게티를 사사하였다. 그의 피아노 트리오 세 작품은 각기 상이한 음악적 스타일을 보여주는데, '트리오 트로피칼'이라는 부제의 1번은 작곡가의 출신지인 카리브의 향토적 색채를 짙게 드러내며, 2번은 살사와 같은 춤곡 리듬과 음열주의를 결합한 작품이다. '로맨티코'라는 부제의 3번에서는 19세기 로맨틱 실내악과 아프로-카리브 음악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8.572127
하이든:
미사 브레비스, 천지창조 미사
트리너티 콰이어/ J 오웬 버딕
& 제인 글로버/ 레벨 바로크 오
케스트라

인생의 황혼기를 맞고 있던
1805년의 하이든은 반세기 이상
이나 앞서 완성했던 작품인 미사
브레비스를 다시 꺼내어 fl, cl,
bn, tp, timp 등을 보강하여 관
현악 반주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본 음반에 수록된 것이 바로
1805년 버전이다. 1801년에 작
곡된 미사 Bb장조는 흔히 천지
창조 미사라고 불리는데, 동명의
오라토리오에서 인용한 부분들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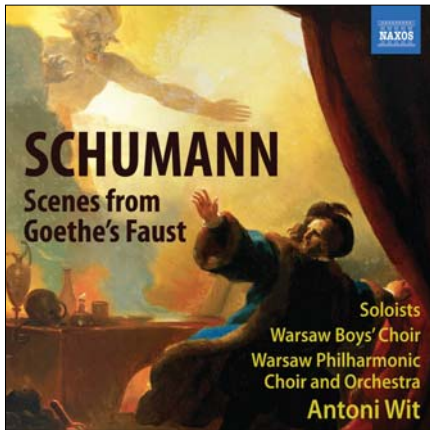
8.572489
블로흐:
미사 칸타테, 상타 마리아, 크리
스트 홀 블루스 외
외르크 바친스키(sop)/ 페르난
드 크바토르키/ 파데레프스키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토마 블로흐는 글래스 하모니카,
온데 마르티노와 같은 희귀 악기
들의 연주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음악가다. 그는 작곡
가로도 활동 중인데, 본 음반에
서도 글래스 하모니카, 온데 마
르티노, 크리스탈 바스켓, 워터
폰, 크리스탈 벨 등의 다양한 특
수 악기들을 위한 작품들과 함께
소프라노 솔로와 관현악을 위한
중요음악인 미사 칸타테가 함께
수록되었다. 남성 소프라노 외르
크 바친스키가 독창을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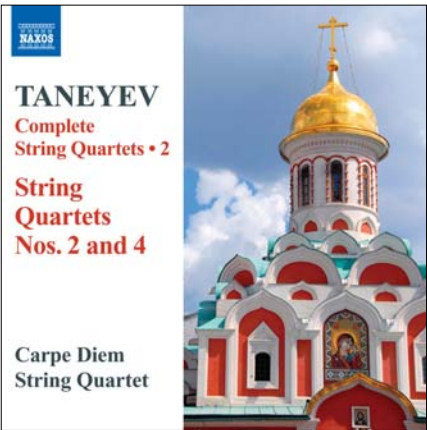
8.570462
리아푸노프:
교향곡 1번, 바이올린협주곡
막심 페도토프(vn)
드미트리 아블론스키/ 러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러시아 국민주의 음악의 제 2세대 작곡가의 한 사람인 세르게이 리아푸
노프는 발라키레프와 그의 동료들에게서 큰 음악적 영향을 받았다. 그
의 바이올린협주곡은 러시아 특유의 감각적인 낭만적 분위기가 돋보이는
단악장 구성의 작품이다. 교향곡 1번은 그의 청년기 시절 작품임에도
당당한 스케일 속에 국민주의의 이디움을 충실히 담아낸 역작이다.



8.572430-31 [2CDs]
슈만:
괴테 파우스트의 장면들
여러 가수들
안토니 비트/ 바르샤바 필하모닉과 합창단

괴테의 '파우스트'는 수많은 낭만시대 작곡가들에게 창조적 영감을 제
공하였다. 로베르트 슈만 역시 그 중 하나로 '파우스트'의 2부를 기
반으로 칸타타 풍의 걸작 합창곡을 완성하였다. 파우스트와 그레첸의 러
브 신에서 시작되어 파우스트의 회개로 마무리되는 이 작품은 7명의 솔
리스트와 어린이합창단, 그리고 혼성합창단과 관현악반주를 요구하는
장대한 스케일의 대작이다.



8.572421
타네예프:
현악사중주 2,4번
카르페 디엠 현악사중주단

평단의 호평을 받았던 1,3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선보이는 카르페 디엠
퀸텟의 타네예프 현악사중주 음반. 베토벤의 후기 걸작들을 연상케 하
는 내면적인 에너지를 지닌 작품인 2번과 작곡가의 현악사중주들 중
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특징을 보여주는 4번이 함께 kerül링되었다. 두 작
품 모두 예측하기 힘든 화성 조합과 풍부한 음악적 아이디어를 담고 있
는 수작들이다.



8.572505
허드:
팝 칸타타
뉴 런던 어린이 합창단/ 로날드
코프/ 뉴 런던 오케스트라 단원들
영국 작곡가 마이클 허드는 성악
장르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린이
합창단을 위한 흥미진진한 작품
들을 다수 남겼다. 본 음반에 수
록된 다섯 편의 합창곡들 중 '요
나 맨 재즈', '탕아', '스윙잉 삼
손'은 성격의 텍스트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며, 그 외에 '루스터
랙', '코람 대장의 아이들'의 두
작품이 함께 수록되었다. 어린이
들의 동심에 잘 어울릴만한 밝고
도 친근한 선율과 재즈 스타일의
감각적인 반주가 매력적인 작품
들이다.



8.572504
그레이트 브리티시 앤섬
(패리, 스탠포드, 월튼, 홀스트,
핀지 외)
제레미 백하우스/ 바사리 싱어즈
영국을 대표하는 챔버 콰이어의
하나인 바사리 싱어즈가 근현대
영국 음악계를 대표하는 일곱 작
곡가들의 종교합창곡을 노래하
였다. 패리의 아름답고도 장엄한
'Blest Pair of Sirens', 스탠포
드의 '마그니피카트', 홀스트의
'Nunc Dimittis', 핀지의 'Lo,
the full final sacrifice', 스테이
너의 'I saw the Lord', 월튼의
'The Twelve', 네일러의 'Vox
Dicentis' 등을 수록.



8.572323
수크:
동화, 판타지, 환상적 스케르초
미카엘 루드비히(vn)
조안 팔레타/ 버팔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드보르작의 사위이자 현재 체코를 대표하는 명연주자인 같은 이름의 바
이올리니스트의 조부인 작곡가 요제프 수크는 장인으로부터 체득한 보
헤미아 기반의 민족주의적인 작품과 자신의 천부적인 선율감각을 결합
한 매력적인 작품들을 다수 남겼다. 기교적인 바이올린 독주와 관현악
반주를 위한 판타지, 라두스 왕자의 환상적인 모험담을 세련된 관현악
법으로 표현한 '동화', 그이 대표 관현악곡인 환상적 스케르초를 수록.



8.559654
18세기 미국 서곡집 (휴이트, 카, 리네이글)
패트릭 갈르와
신포니아 핀란드야

독립 전쟁 전후에 활동했던 미국 작곡가들의 작품을 발굴한 독특한 음
반. 모차르트 등의 기존 인기작품들을 엮은 형태의 메들리 오버처를
창안한 제임스 휴이트의 작품들, 귀에 익은 민요들과 '라 마르세이즈'
등의 선율을 차용한 벤저민 카의 페더랄 오버처, 잉글랜드 민요, 스코
틀랜드 민요, 프랑스 혁명가, 미국 민요 등을 적절히 배합한 알렉산더
리네이글의 행사용 서곡들이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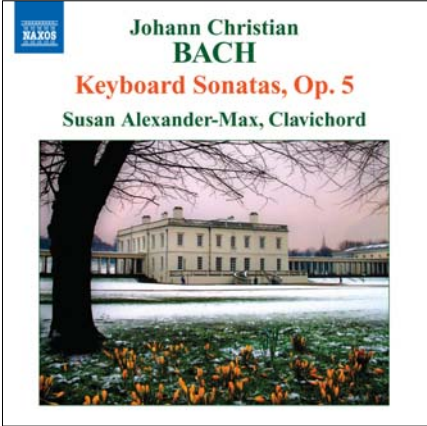


8.572471
토스티, 마스카니, 도나우디:
이탈리안 발라드
스테파노 세코(te)
다비트 아브라모비츠(pf)

19세기 후반 이탈리아에서는 가
족들이나 친구들을 대상의 사설
음악회를 위한 친근한 선율의 발
라드들이 큰 인기를 누렸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작곡
가가 바로 파올로 토스티였다.
본 음반에는 '4월', '세레나데',
'여름 달', '이상형', '꿈', '이별
의 노래' 등의 그의 대표 발라드
들과 더불어 동시대 작곡가들인
마스카니와 도나우디의 가곡들
하나씩도 함께 수록되었다.



8.660282-83 [2CDs]
파치니:
돌 손님
(Il convitato di pietra)
여러 가수들/ 다니엘레 페라리/
프로초하임 쥐드베스트도이치스
캄머오케스트라
조반니 파치니(1769-1876)의 오
페라 '돌 손님'은 자신의 가족들
을 위한 사설 음악회를 위해 완성
한 작품이다. 모차르트의 '돈 조
반니'와 동일한 소재를 다룬 것으
로, 아가자기한 실내악 규모의 반
주 위로 자신의 다른 작품들에서
차용한 선율들을 차용한 아리아
들이 아름답게 이어진다. 본 음반
은 작곡가 자신의 필사본을 토대
로 한 것으로 2008년 빌트바트
로시니 페스티벌에서 있었던 최
초의 공개 연주회 실황을 담았다.



8.570476
JC 바흐:
건반 소나타 Op.5
수잔 알렉산더-막스(clavichord)
대바흐의 막내아들이자 일명 '런던의 바흐'라고 불렸던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는 교향곡과 건반 독주곡 분야에서 어린 모차르트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건반소나타 Op.5는 막 음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포르테피아노를 위해 완성된 작품들이지만, 본 음반에서는 보다 섬세한 음향의 클라비코드를 통해 작품 내면의 갈랑적인 속성을 근사하게 드러내었다.



8.570210
롤라: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니퍼 스텀(va)
코니 쉬(pf)
2006년 CAG 콩쿠르 우승자인 미국의 비올리스트 제니퍼 스텀의 낙소스 데뷔 레코딩.파가니니의 스승으로 알려진 이탈리아의 걸출한 현악 비르투오조 알레산드로 롤라의 비올라를 위한 실내악들에 도전하였다. 비올라 특유의 중저음의 매력이 돋보이는 세 편의 비올라 소나타 외에도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이중주, 세 편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연습곡을 함께 수록하였다.



8.572260
할프레르:
영화음악 <카르멘>
마크 피츠-제랄드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
파야의 애제자였으며, 스트라빈스키와 라벨로부터도 가르침을 받았던 에르네스토 할프레르는 20세기 전반 스페인 음악계를 대표하는 주요 작곡가의 한 사람이었다. 그가 1926년에 제작된 무성영화 '카르멘'을 위해 완성했던 음악들이 재발굴되어 최초로 레코딩되었다. 영화의 배경을 고려하여 안달루시아 지방의 무어풍 민속음악적인 요소들을 적극 활용한 만큼 미국적인 매력으로 가득한 음악들이다.



8.572194
슈미트:
살로메의 비극, 미라주, 그림자
뱅생 라르데르(pf)
마스네, 포레 등을 사사했던 플로랑 슈미트는 20세기 전반 가장 영향력 있는 프랑스 작곡가 중 한 사람이었지만, 만년에는 비시 정부에 대한 부역으로 명성이 급락하고 말았다. 슈트라우스의 오페라와 동일한 소재를 다룬 발레 '살로메의 비극'이 그를 대표하는 작품인데, 본 음반에는 작곡가 자신의 피아노 버전으로 수록되었다. '그림자' 역시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를 연상케 하는 신비로운 분위기의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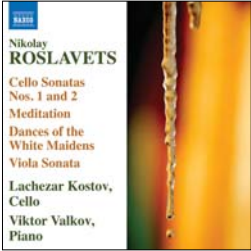
8.559669
다니엘포어:
전주곡 1,2권 '마법의 정원'
시아인 왕(pf)
현재 미국에서 가장 주목 받는 작곡가의 한 사람인 리처드 다니엘 포어는 '마법의 정원'이라는 타이틀 아래 17년의 간격을 두고 피아노를 위한 전주곡을 두 세트 완성하였다. '어린 시절의 추억', '밤', '엘리지', '침묵과의 교감', '겨울의 고독', '내 방에 유령이 있다' 등의 소재목들이 말해주듯, 꿈과 추억, 현실과 환상의 세계를 비교적 명료한 서법으로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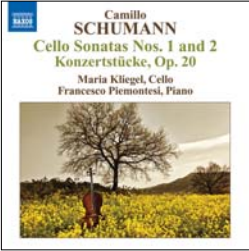
8.579005
슈체틴스키:
레퀴엠 외 우크라이나 종교합창곡들
글로리아 챔버 콰이어 외/ 로만 레바코비츠/ 레오폴리스 챔버 오케스트라
우크라이나 작곡가 알렉산더 슈체틴스키의 종교합창곡은 고유의 정교 음악 전통을 토대로 파트나 구레츠키를 연상케 하는 복고적이고도 장엄한 영적인 감동을 추구하고 있다. 아카펠라 혼성합창을 위한 대곡인 'Know Yourself'와 2개의 종과 혼성합창을 위한 칸타타 '밝히는 빛', 그리고 전통 라틴 텍스트를 토대로 완성한 현악합주 반주의 레퀴엠을 통해 이 작곡가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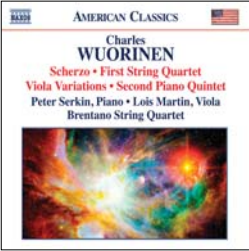
8.572389
가르시아 아브릴:
기타 작품집
프란치스코 베르니에르(guitar)
미켈레 피랄루가 콩쿠르 우승자인 프란치스코 베르니에르가 스페인의 현대 작곡가 안토니오 가르시아 아브릴의 개성적인 기타 작품들에 도전하였다. 지중해 일대의 풍광을 자유롭게 표현한 '지중해 환상곡', 세고비에에 대한 헌정 작품인 '에보카시오네스', 파리, 아테네, 마드리드의 세 도시의 개성을 음악으로 표현한 '3개의 도시 전주곡', 콤포스텔라 대성당 현관의 유명한 조각작품을 소재로 한 '현관의 소나타' 등을 수록.



8.570996
로슬라베츠:
첼로소나타 1,2번, 명상곡 외
라체차르 코스토프(vc)
빅토르 발코프(pf)
로슬라베츠는 20세기 초 러시아 출신 작곡가들 중에서 가장 독창적이고도 진보적인 음악 세계를 보여줬던 작곡가로, 러시아 대혁명 전후의 혼란기에 자신만의 독특한 아방가르드 스타일의 작품을 구가하였다. 그의 첼로소나타들은 러시아 고유의 멜랑콜리한 감성과 그의 열정적이고도 드라마틱한 음악서법이 결합된 작품들이며, 여기에 첼로를 위해 편곡된 작곡가의 비올라 소나타가 함께 수록되었다.



8.572314
카밀로 슈만:
첼로소나타 1,2번, 콘체르트슈튀크 Op.20
마리아 클리겔(vc)
프란체스코 피에몬테시(pf)
1872년 작센의 괴니히슈타인에서 태어난 카밀로 슈만은 19/20세기 전환기를 대표하는 오르간 의 거장이었으며, 작곡가로서도 실내악 장르를 중심으로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그의 음악은 브람스 풍의 신고전주의와 리스트의 후기낭만주의가 적절히 절충된 스타일로, 특히 그의 첼로소나타들은 천부적인 선율감각과 피아노 파트의 초절교가 인상적인 작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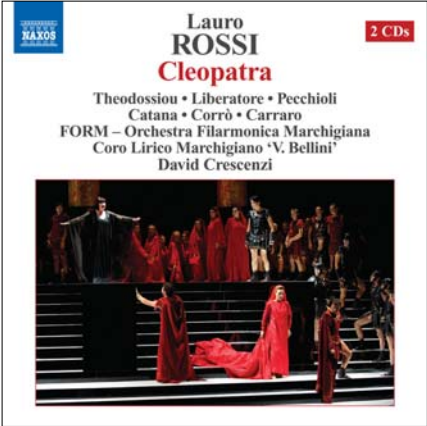
8.559694
우리넨:
현악사중주 1번, 피아노오중주 2번, 비올라변주곡 외
브렌타노 현악사중주단, 피터 제르킨(pf), 로리스 마틴(va) 외
미국의 유력 작곡가 찰스 우리넨의 음악 세계는 초기 폴리포니에 대한 자신의 애정과 각 악기들의 초절교교적인 활용, 그리고 급진적인 모더니즘을 토대로 한다. 1971년도 작품인 현악사중주 1번은 그의 작곡 캐리어의 분수령이 되었던 중요작이며, 비올라 독주를 위한 변주곡, 피아노를 위한 스케르초, 2008년에 완성되어 이번이 최초로 녹음되는 작품인 피아노 오중주가 함께 수록되었다.



8.570831-32
비제:
피아노 작품 전곡 (2CD)
율리아 세베루스(pf)
조르주 비제는 작곡가에 앞서 뛰어난 피아니스트이기도 했다. 그가 남긴 많진 않은 피아노 작품들 중에는 쇼팽을 연상케 하는 서정적인 녹턴과 로망스, 기교적인 소품들인 카프리스와 Chasse Fantastique, 드라마틱한 곡 전개가 인상적인 반음계적 변주곡, 그리고 작곡가 자신이 피아노 용으로 편곡한 극부수 음악 '아를르의 여인' 1,2모음곡 등의 매력적인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8.572367
마이어베어:
가곡집
시반 로템(sop)
조나선 작(pf)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프랑스를 주무대로 활동했던 자코모 마이어베어는 '이집트의 십자군', '아프리카의 여인' 등의 그랜드 오페라 작곡가로 유명하지만, 살롱 풍의 매력적인 성악 소품들도 다수 작곡하였다. 사랑의 고통, 종교적인 열정 등을 소재로한 26곡의 가곡들을 이스라엘 출신의 소프라노 기대주 시반 로템의 감미로운 음성으로 수록하였다.



8.660291-92 [2CDs]
로시:
오페라 <클레오파트라>
디미트라 테오도시우 외
다비트 크레센치/ 오케스트라 필하모니카 마르키자나
1876년 토리노에서 초연되었던 라우로 로시의 오페라 '클레오파트라'는 그보다 5년 앞서 공개되었던 베르디의 '아이다'를 통해 촉발되었던 고대 이집트에 대한 호기심을 재점화시켰던 작품이다. 1막의 연회장면, 2막에 등장하는 클레오파트라의 아리아, 4막의 클레오파트라와 옥타비아의 이중창 등 주목할만한 부분들을 다수 담고 있는 작품으로, 본 음반은 2008년 스페리스테리오 오페라 페스티벌의 실황을 담은 것이다.



Naxos Historical

www.naxo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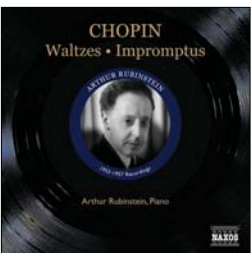
8.111363
랄로: 스페인 교향곡
비에냐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2번 외
야사 하이페츠(vn)
윌리엄 스타인버그, 알프레드 발렌슈타인 외
RCA 빅터 심포니 외

야사 하이페츠가 1950년대 초반 RCA를 통해 남겼던 음원들 중에서 랄로의 스페인교향곡(51년 녹음)과 비에냐프스키의 바이올린협주곡 2번(54년 녹음)을 함께 복각 수록하였다. 그 외에도 쇼송의 '시곡', 라벨의 '치간느', 생상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차이코프스키의 '감상적인 세레나데' 등의 인기 바이올린 쇼피스들에 대한 동시대의 녹음들이 함께 수록되었다.



8.111360-61 [2CDs]
메노티:
블릭 거리의 성자들 외
여러 가수들
토마스 시퍼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88 서울올림픽 문화축전 위촉작인 오페라 '시집가는 날'의 작곡가로 우리와도 깊은 인연을 맺었던 메노티는 20세기 가장 폭 넓은 인기를 얻었던 오페라 작곡가의 한 사람으로 기억된다. 종교적 열정과 이민자의 삶을 다룬 오페라 '블릭 거리의 성자들'은 작곡가에게 풀리처 상의 영예를 안겼던 작품이다. 가면극과 발레, 그리고 실내악이 결합된 독특한 장르의 작품인 '유니콘, 고르곤과 맨티코어'가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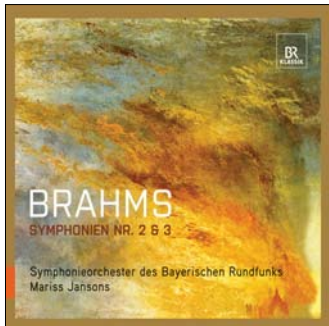
8.111365
쇼팽:
왈츠, 즉흥곡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pf)

자타가 공인하는 20세기 최고의 쇼팽 스페셜리스트의 한 사람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이 RCA를 통해 남긴 쇼팽 레코딩들이 복각의 대가 마크 오버트-쏰의 손을 통해 복각되었다. 14개의 왈츠는 1954년의 녹음이며, 3개의 즉흥곡과 즉흥환상곡은 1953년 54년 57년에 나누어 녹음된 것들이다.



BR Klassik

www.br-klassik.de



900111 [Hybrid-SACD]
브람스: 교향곡 2번, 교향곡 3번
마리스 안손스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2006년 3월 뮌헨 헤르쿨레잘에서의 실황(교향곡 2번)과 2010년 1월 빈 무지크페라인에서의 실황(교향곡 3번)을 함께 묶은 음반. 현재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마리스 안손스의 뛰어난 연출과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정교한 앙상블은 교향곡 2번의 유연함과 교향곡 3번의 비장함 양쪽 모두를 만족스럽게 그려내었다.



900704
프랑크: 교향곡
림스키코르사코프: 러시아 부활제 서곡
키릴 콘드라신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모스크바 필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키릴 콘드라신은 1978년 서방으로 망명한 이후에도 암스테르담, 빈, 함부르크, 뮌헨 등의 일급 악단들과 더불어 왕성한 연주활동을 이어나갔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은 본 음반에 수록된 1980년 2월의 콘서트 이후 그를 라파엘 쿠벨릭의 후임으로 내정했지만, 이듬해 그가 심장마비로 급서하는 바람에 실현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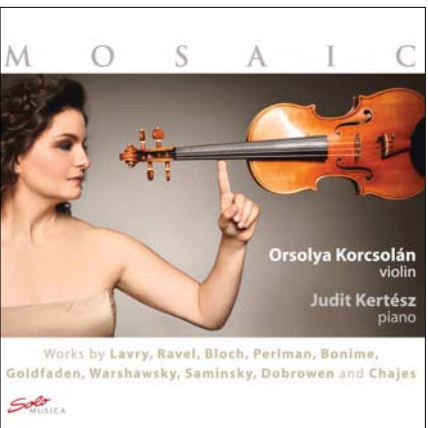
Solo Musica

www.solo-musica.de



SM145
슈베르트:
피아노트리오 D.929, 피아노소나타 D.664
트리오 오푸스100
율리버 슈나이더

슈베르트의 현악사중주 D.929(op.100)는 2악장을 여는 음울한 선율이 영화 '해피엔드'에 삽입된 이후에 대중적으로 유명세가 한층 더해진 작품이다. 스위스와 러시아의 젊은 기대주들이 함께 결성한 트리오 오푸스100은 상트 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홀에서 바로 이 작품으로 데뷔연주를 치렀고 악단명 역시 이 작품에서 따왔다. 슈베르트의 주요 피아노소나타인 A장조 소나타가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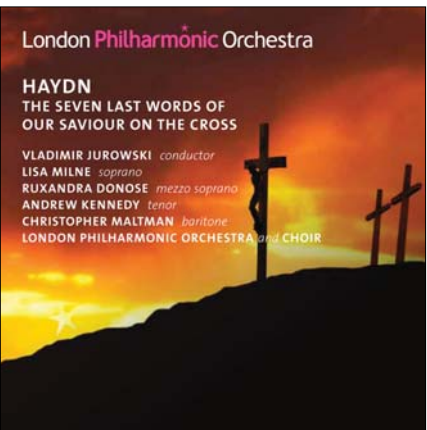
SM150
히브리 바이올린 리사이틀 (블로흐: 발썬 모음곡 외)
오르솔라 코르솔란(vn)
유디트 케르테스(pf)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나 빈에서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오르솔란은 특히 유대계 작곡가들의 작품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연주자다. 본 음반은 블로흐의 유명한 모음곡 '발썬', 라벨의 '카디쉬', 삼민스키의 '히브리 랩소디', 라브리의 '3개의 유대 춤곡', 보니메의 '히브리 풍의 춤곡' 등 유대적인 색채로 가득한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브리의 '3개의 유대 춤곡' 중 '호라'의 뮤직비디오가 보너스로 제공된다.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LPO

www.lpo.co.uk



LPO-0051
하이든: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일곱 말씀 (오라토리오 버전)
리사 밀느, 루산드라 도노세, 앤드류 케네디, 크리스토프 몰트맨
유롭스키/ 런던 필

하이든은 스페인 카디스 성당의 위촉으로 성주간을 위한 명상적인 분위기의 작품을 완성하였다. 원곡은 관현악곡이었지만, 작곡가 자신이 현악사중주를 위해 편곡한 버전이 지금까지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그 외에도 요제프 프리베르트가 텍스트를 붙인 오라토리오 버전, 피아노 독주를 위한 버전 등도 등장하였다. 본 오라토리오 버전은 2009년 11월 28일 로얄 페스티벌 홀에서의 실황을 담은 것이다.



Dynamic

www.dynamic.it



DM8001
H.I.F. 비버 & C.H. 비버:
트럼펫과 현을 위한 소나타
가브리엘레 카소네(trp)/ 로베르
토 팔코네(vn)/ 안토니오 프리게
앙상블 피안&포르테
목주소나타로 유명한 하인리히 이
그나츠 비버에게는 두 아들이 있
었는데, 둘 다 음악가로 성장하였
다. 카를 하인리히 비버가 바로 그
의 둘째다. 그는 아버지의 대를 이
어서 잘츠부르크 대주교구에서 봉
직하였다. 본 음반에는 다양한 편
성의 악기 조합을 위한 그의 소나
타 작품들과 더불어 아버지 하인
리히 이그나츠의 표제적 성격의
바이올린소나타와 2대의 트럼펫을
위한 소나타가 함께 수록되었다.



DM8002
튀르슈테나우:
프리메이슨을 위한 음악
마리오 카르보타(II)/ 알도 마르
티노니(guitar)/ 디에고 파솔리
스/ RTSI 합창단
플루트의 명인이었던 카스파르
튀르슈테나우는 작품 제목에서
짐작하듯이 프리메이슨의 일원
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음반에
수록된 두 편의 프리메이슨을 위
한 노래들은 플루트와 기타의 반
주와 함께 독창과 남성합창이 교
차하는 형식을 보여준다. 함께
수록된 기타와 플루트를 위한 12
편의 소품들 역시 두 악기의 독
특한 음색이 멋진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작품 모음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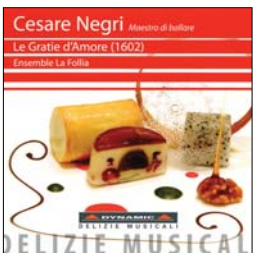
DM8003
삼마르티니:
하프시코드협주곡, 플루트협주
곡, 오보에협주곡
비안키(cemb)/ 페리가토(II)/ 쿠아란
타(Ob)/ 디 무지치 알브로시아니
주제메 삼마르티니는 고전 교향곡의
선각자 중 한 사람으로 유명한 조반
니 삼마르티니의 형이다. 그는 당대
의 걸출한 오보이스트로 명성을 얻
었으며, 작곡가로서도 매력적인 작
품들을 다수 남겼다. 음반에는 하프
시코드, 플루트, 오보에 등을 위한
독주협주곡 다섯 편이 수록되었는
데, 그 중 네 작품이 최초 녹음된 것
들이다. 이탈리아 특유의 빼어난 선
율 감각과 각 악기들의 특성을 잘
살려낸 매력적인 작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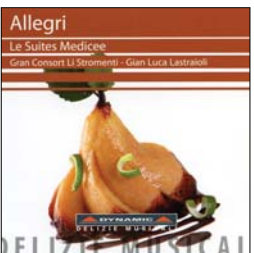
DM8004
몽테클레르:
트럼펫과 하프시코드를 위한 협주곡
가브리엘레 카소네(trp)/ 안토니오
프리게(cemb)/ 앙상블 피안&포르테
몽테클레르는 이탈리아에서 유
명한 뒤 파리를 배경으로 활약했
던 음악가다. 작곡과 더불어 더
블베이스 연주자로 활동했으며,
특히 당시 프랑스에서 막 각광받
기 시작하던 트라베르소 플루트
를 위해서 주목할 만한 작품들을
다수 남겼다. 본 음반에 수록된
표제적 성격의 4편의 협주곡은
모두 트라베르소 플루트를 독주
악기로 작곡한 작품들이지만, 본
음반에서는 내추럴 트럼펫으로
독주 파트를 연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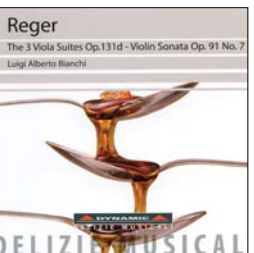
DM8005
생상:
현악사중주 1,2번
베네치아 현악사중주단
하이든과 베토벤에 의해 현악사
중주가 실내악을 대표하는 장르
로 정착하였지만, 프랑스 음악의
경우에는 이 장르에서 주목할 만
한 활약을 보인 작곡가가 그리
 많지 않았다. 생상의 두 현악사
중주는 드뷔시 이전 이 나라에서
만들어진 가장 돋보이는 이 장르
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작품 모두 네 악기 사이의 균형
잡힌 밸런스를 통한 폴리포닉한
구성과 세련된 화성법이 돋보이
는 수작들이다.



DM8006
네그리:
사랑의 미덕 (Le Gratie d'
Amore)
앙상블 라 폴리아
1536년 밀라노에서 태어난 체사
레 네그리는 17세기 북부 이탈리
아 일대에서 춤곡 작곡가로 높은
명성을 누렸던 작곡가다. 그는
음악가이기에 앞서 스스로 뛰어난
무용수였으며, 춤 선생으로도
많은 후진들을 배출했다고 한다.
자신의 몸으로 체득한 춤에 대한
노하우를 이용하여 다양한 춤곡
들을 작곡하였는데, 르네상스 후
반 이탈리아 춤곡의 독특한 매력
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멋진
선물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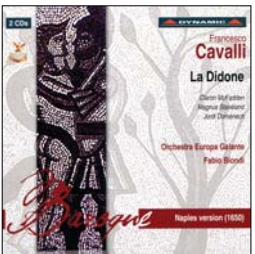
DM8007
알레그리: 메디치 모음곡
잔 루카 라스트라이올리
그랑 콘스트 리 스트로멘티
로렌초 알레그리는 17세기 전반
기 피렌체의 메디치 궁정에서 류
트 연주자로 맹활약했던 음악가
다. 그는 궁정 무도회를 위해 빼
어난 춤곡들을 다수 작곡했는데,
그 중 일부가 본 음반에 수록되
었다. 갈리아드, 코렌티, 브란디,
가보테, 카나리오 등의 당시 메
디치 궁정에서 유행하던 춤곡들
이 자유롭게 배치된 작품들로,
귀족적 취향의 우아함과 생기발
랄한 경쾌함이 절절히 조화를 이
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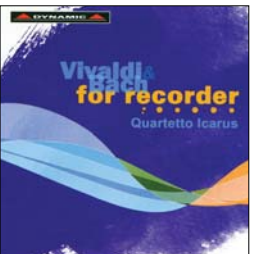
DM8008
레가:
3개의 비올라 모음곡, 바이올린
소나타 Op.91-7
루이지 알베르토 비안키(vn & va)
바흐를 존경했던 레가는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걸작에
대한 오마주로 일곱 편의 무반주
비올라를 위한 소나타와 모음곡
을 완성하였다. 본 음반에는 그
중 3편의 모음곡과 1편의 소나타
를 수록하였다. 비올라는 바이올
린과 첼로에 비해 독주악기로서
홀대받아왔던 악기지만 레가의
이 작품과 같은 적절한 작품을
통해서는 그 어떤 악기 이상의
중저음역의 매력을 자랑하는 악
기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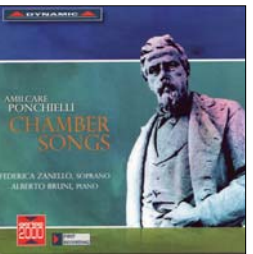
DM 8009
파슈:
오보에협주곡, 2대의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 우베르튀르
주제메 날린, 마르코 체라(Ob)/
카를로스 구베르트/ 아카데미아
바흐 바로크
본 음반에 수록된 요한 파슈의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 4편은 드
레스덴의 궁정에서 교류했던 비
발디의 영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들이다. 비발디의 양식을 토
대로 파슈 자신의 스타일을 가미
한 작품들로 독주와 투티의 절묘
한 밸런스와 함께 오보에의 독특
한 매력이 매력적으로 드러나게
끔 고려되었다. 전형적인 프랑스
풍의 춤곡 모음곡인 현악합주를
위한 우베르튀르 G장조가 함께
수록되었다.



CDS537/1-2 [2CDs]
카발리:
오페라 <라 디도네>
클래런 맥파덴 외/ 파비오 비온
디/ 에우로파 갈란테
1641년 초연된 카발리의 오페라
'라 디도네'는 고대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아에네이드'에
서 줄거리를 따왔다. 원작에서
디도는 비극적으로 자살하지만
대본작가 부세렐리오는 아에네
아스의 버림을 받은 디도가 게틀
리의 왕 이아르바스와 결혼하는
해피엔딩으로 내용을 바꿨다. 본
신보는 최고의 바로크 바이올리
니스트 파비오 비온디가 자신의
악단 에우로파 갈란테를 지휘한
2006년 라 페니체 오페라 실험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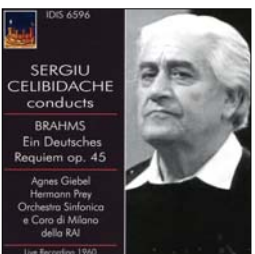
CDS667
리코더 앙상블로 연주하는
바흐와 비발디
이카루스 리코더 사중주단
네 대의 리코더로 연주하는 비발
디와 바흐의 귀에 익은 선율들.
비발디의 오리지날을 편곡한 바
흐의 작품들인 협주곡 BWV596
과 593, 에르스트 공작의 작품
을 바흐가 편곡한 BWV596, 바
흐 최후의 미완성 작인 푸가의
기법 중에서 콘트라퐁투스 1,3,9
번, 비발디의 협주곡 RV157,
153, 443 등이 리코더의 청명한
사운드를 통해 매력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S2043
폰키엘리:
가곡집
페데리카 차넬로(sop)
알베르토 브루니(pf)
아밀카레 폰키엘리는 오페라 '라
조콘다' 하나의 작품으로 기억되
는 이름이지만, 그는 실내악, 가
곡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서 매
력적인 작품들을 다수 남겼다.
본 작에는 오페라 작곡가로서의
그의 뛰어난 선율감각이 잘 드러
나는 예술가곡들과 함께 피아노
독주를 위한 소품들도 함께 수록
되어 이 작곡가의 또 다른 매력
을 충분히 전달해 준다. 차분한
서정을 담은 가곡 'Un Sogno'
와 피아노곡 'Elegia'의 매력
이 특히 빼어나다.



IDIS6599
말라:
교향곡 9번
존 바르비롤리
토리노 RAI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탈리아계 영국 지휘자인 존 바
르비롤리는 20세기 중반 중요한
말라 전도사의 한 사람으로 기억
된다. 베를린 필과의 공연 이후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요청에 의
해 EMI를 통해 레코딩한 교향곡
9번이 특히 널리 알려져 있다.
본 실험녹음은 그보다 4년 앞서
인 1960년 11월 25일 토리노에
서 토리노 RAI 심포니를 지휘한
것으로, 이 작품에 대한 바르비
롤리의 빼어난 심미안이 이 때부
터 이미 형성되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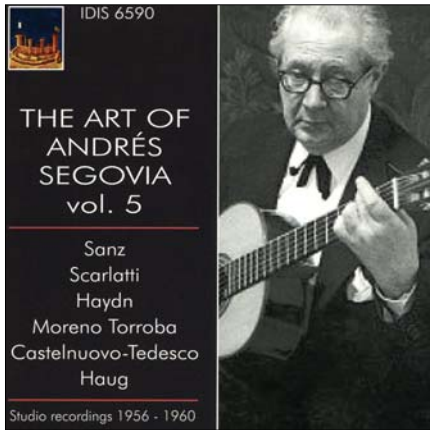
IDIS6596
브람스:
독일 레퀴엠
아그네스 기벨(Sop)/ 헤르만 프
라이(Br)/ 세르쥬 첼리비다케/
밀라노 RAI 심포니
1960년 2월 19일 밀라노에서 있
었던 첼리비다케와 밀라노 RAI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콘서트 실
황. 브람스의 가장 위대한 합창
곡인 '독일 레퀴엠'을 당당하게
구축해나가는 첼리비다케 특유
의 묵직한 연출이 돋보이는 연주
다. 소프라노 아그네시 기벨과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의 감동적
인 가창도 이 연주의 완성도를
더해준다.



IDIS6607
슈베르트:
교향곡 8번 '미완성', 슈만: 교향곡 2번
세르쥬 첼리비다케
로마 RAI 심포니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중반까지 첼리비다케는 이탈리아의 주요
도시들에 산재한 RAI(이탈리아 국영방송) 소속 오케스트라들과 주목할
만한 공연실험들을 다수 남겼다. 본 음반에 수록된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 '미완성'과 슈만의 교향곡 2번은 모두 로마 소재 RAI 심포니를 지
휘한 것들로 각각 1958년 3월 11일과 1960년 3월 18일의 공연실험들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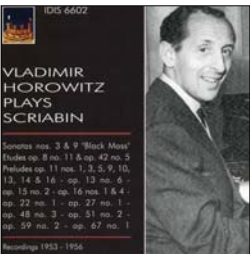
IDIS6606
차이코프스키:
피아노협주곡 1,2번
에밀 길렐스(pf)
페르난도 프레비탈리, 킬릴 콘드라신/ 레닌그라드 필 외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와 더불어 구소련을 대표하는 양대 피아니스트로 군림했던 에밀 길렐스가 자신의 최전성기였던 1959년에 남긴 차이코프스키의 협주곡 두 편의 실황 연주. 유명한 협주곡 1번은 1959년 2월 3일 페르난도 프레비탈리가 지휘하는 밀라노 RAI 심포니와의 협연이며, 협주곡 2번은 같은 해 12월 23일 킬릴 콘드라신이 지휘하는 레닌그라드 필하모닉과의 협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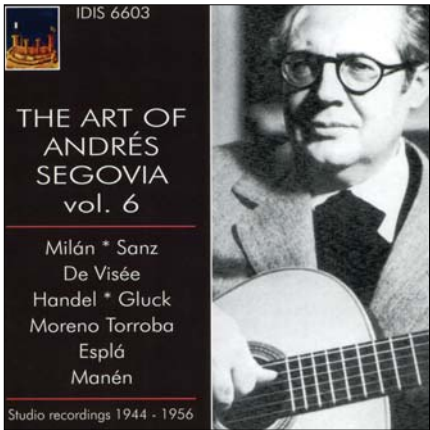
IDIS6590
세고비아의 예술 5집
산초, 스카를라티, 하이든, 모레노 토로바, 카스텔누오보 테데스코, 하우크
안드레스 세고비아는 19세기 후반 거의 끊어지다시피 했던 클래식 기타 음악의 전통을 20세기에 다시 부활시킨 장본인이라고 같은 존재다. 세고비아는 20세기 작곡가들의 기타 작품들을 즐겨 연주했었는데, 그 중 일부가 본 음반에 수록되었다.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의 소나타 '보케리니 오마주', 모레노 토로바의 '성격적 소품들', 산스의 '에스파눌레타스', 하우크의 '알바-포스트루디오' 연작 등을 수록.



IDIS6605
모차르트: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
텔레만: 플루트협주곡 외
장 피에르 랑팔(fl), 릴리 라스킨(harp)/ 장 프랑스와 파야르/ 파야르 챔버
20세기 후반 장 피에르 랑팔의 이름은 플루트의 동의어로 받아들여졌을 정도로 대단한 유명세를 누렸다. 그의 우아하고도 매력적인 사운드와 빼어난 초절 기교는 당대 모든 플루트 연주자들의 모범이 되었다. 본 음반은 그가 50년대에 남긴 희귀 음원들을 모은 것으로, 하프리스트 릴리 라스킨과 함께 협연한 모차르트의 이중협주곡, 텔레만의 두 작품인 플루트협주곡 G장조와 모음곡 A단조를 수록하였다.



IDIS6602
스크라빈:
소나타 3,9번, 전주곡 발체 블라디미르 호로비츠(pf)
불멸의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로비츠가 1950년대에 남긴 스크라빈 레코딩들을 모은 음반. 1953년 실황인 소나타 9번과 에튀드 Op.8-11, Op.42-5, 1955년의 스튜디오 레코딩들인 소나타 3번, 전주곡 Op.11-1, 3, 9, 11, 13, 14, 16, Op.15-2, Op.16-1, Op.13-6, Op.27-1, Op.51-2, Op.48-9, Op.67-1, Op.59-2, 1956년 스튜디오 레코딩인 전주곡 Op.11-5와 Op.22-1을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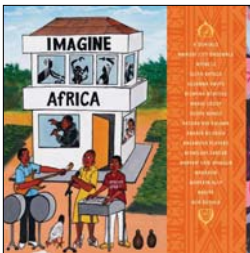


IDIS6603
세고비아의 예술 6집
밀란, 산초, 드 비세, 헨델, 글룩, 모레노 토로바, 에스플라, 마넌
안드레스 세고비아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1940-60년대의 레코딩들 중에서 르네상스 시대 스페인 작곡가 루이스 밀란의 파바나, 바로크 시대 프랑스 작곡가 로베르 드 비세의 춤곡들, 헨델의 유명한 사라방드와 미뉴에트, 글룩의 '정령들의 춤', 17세기 스페인 작곡가 산스의 파반나, 근대 작곡가 모레노 토로바의 소나티나, 20세기 작곡가 에스플라의 '2 impresiones Levantinas' 등의 다양한 시대의 작품들을 수록.



Kirkelig Kulturverksted (KKV)

www.kkv.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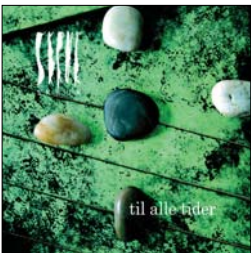
FXCD 353
IMAGINE AFRICA (Various Artists)
이매진 아프리카

마음속 아프리카, 드넓은 사바나와 강인한 여인들,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황무지의 장엄한 행렬... 황홀한 리듬감의 춤, 우물을 찾아 물을 마시는 야생 동물들, 밀림의 달콤한 과일과 열광적인 환영의 댄스! 사람과 동물을 끌어안고 먹여 살리는 놀랍고 비옥한 대륙, 그러나 태초 이래 아프리카는 제국의 식민통치와 억압에 시달려왔다. 이제야 뒤늦게 잠에서 깨어나 그들의 문화를 마음껏 노래하기 시작했으니 아틀란틱과 인도양 사이의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 새롭고 자랑스러운 아프리카 자의식 축제에 함께한다. 고대에 뿌리를 둔 동시대 아프리카 예술은 경계가 없이 활기차다. 비주얼 아트, 미술, 댄스, 연극, 음악, 문학, 영화... 도처에서 아프리카 예술은 모든 모던적 경향성을 총체적으로 차용해가며 인류 태생지로서의 자부심은 물론이고 모든 표현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 운동의 최전방에 서있는 레이블 미네타 AS는 노르웨이 레이블 KKV와 만나 첫 번째 시리즈를 <이매진 아프리카>를 내놓았다. 이 음반은 동 아프리카의 뮤지션들에 의해 준비되었다. 동시에 차가운 눈보라가 휘도는 노르웨이(노르웨이인)의 겨울 풍경과 묘한 어우러짐도 연출해낸다. 위네즈, 비즈마나, 아나니아, 나키투, 이런 대표적인 뮤지션들과 케냐에서 건너온 유랑악사들까지 총망라. 동아프리카 모던음악을 맛보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이 음반은 14곡 72분 동안 아프리카의 힘과 영광을 충분히 들려줄 것이다.



FXCD 357
KJETIL BJERKESTRAND: PIANO POEMS
케틸 뷔케스트란트

사랑과 희망에 대해 노래하는 무언의 음악 <피아노 시>는 '케틸 뷔케스트란트'의 데뷔음반이다. 우리의 가슴으로 파고드는 감수성과 정적인 고요가 한 권의 시집처럼 승화되었다. 54세인 이 피아노맨은 이제서야 솔로 데뷔음반이지만 그동안 KKV 레이블에서 발매된 여러 음반의 피아노 반주를 맡기도 했으며, 다수의 독주회를 갖기도 했다. 포커스는 그랜드 피아노에 있고, 그 뒤로 경험 많은 피아니스트와 오르가니스트의 그림자가 맴도는데 한편엔 전자음악의 소심한 그림자도 떠돈다. 어쩌면 교회 오르간음악의 터치도 느낄 수 있고, 하몬드 C3 오르간은 그 공간성만으로도 깊고 높은 울림을 전달한다. 케틸은 피아니스트, 키보드 연주자, 오르가니스트, 프로듀서... 많은 아티스트와 협연을 하면서 팝 락 포크 클래식까지, 가끔은 노르웨이 영화음악에도 참여하였다. 그가 54년동안의 짧지 않은 생애의 녹록한 정신을 이 음반에 쏟아부었다. 활기찬 아침 같다가도 생애의 여운이 쓸쓸하게 묻어나는 해저녁의 서정미까지, 아우르는 감성미학, 음반의 서브타이틀인 하나의 줄에 걸려있는 음상미학도 곱씹어 감상할 포인트다.



FXCD 356
SKRUK: TIL ALLE TIDER
모든 시대의 스크록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합창단 스크록이 33년의 경이로운 세월을 돌아보며 베스트 음반을 발매했다. 1980년대를 풍미했던 최초 멤버들은 노르웨이 교회음악과 뉴올리언즈식 현대음악으로 무장하여 <그대여 플룻을 놓아주세요>라는 음반으로 노르웨이 토양에서 비롯된 월드뮤직의 신기원을 이룩했다. 남아프리카에서 안데스 음악까지 망라해온 그들의 음악 여정은 오리엔탈 음악에까지 가 닿았다. 1997년 <우리의 떠난 고향>에 이르러선 스크록은 더 이상 노르웨이만의 합창단이 아닌 세계의 합창단으로 발돋움한다. 2009년 겨울에 합창단은 30년 넘게 일궈온 결과물을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그 히트곡 모음집이 바로 이 음반이다. 전설적인 지휘자 폴 오달 바하는 이 모든 영예를 이끌어온 한줄기 빛이었다. 그는 합창단을 이끌면서 스페셜 음악을 유지하고 50명의 싱어들이 수시로 교체되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33년을 한결 같이 지휘봉을 잡았다. 이 베스트 음반엔 합창단의 해외 공연뿐만 아니라 게스트 노래들도 반갑게 들을 수 있다. 16개 트랙, 40만장 이상이 판매된 음반 중에 엄선한 곡들은 우리 귀에도 속속 익숙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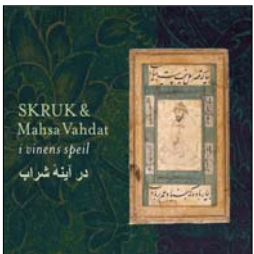


FXCD 363
SIGVART DAGSLAND: Bryllups og begravelsesorkester
시그바르 닥스란트

시그바르 닥스란트와 웨딩 앤 베리얼 밴드(결혼과 장례 밴드)가 들려주는 정확한 결혼 축하와 구슬픈 조곡들. 4개의 신곡과 11곡의 재해석으로 짜여진 이 음반은 클래식하면서도 포크 냄새가 물씬 난다. 캐롤라인 크루거가 듀엣곡을 선사하기도. 닥스란트는 왕가의 혼례성사는 물론 장례예식, 그의 절친한 이들의 기쁨과 슬픔 곁에서도 늘 축하와 조가를 불러왔다. 그에게 이 레파토리는 그레 전혀 낯설지 않아, 동명의 밴드를 결성하고 사랑과 죽음의 면면을 노래로 기록하게 되었다. "Tenk om(What if)", "Alt eg s?g(All I saw)", "De umulige(The impossible ones)", "Naken hud(Naked skin)", "Elsker du meg(Do you love me?)", "Sangen om gleden(The song of joy)", "Orkesteret(The band)", "Bloksberg(Witch mountain)", "Fra vinduet(From the window)" 등 어느 곡 하나 버릴 곡이 없다. 이번에도 명 프로듀서 에릭 힐스테드가 함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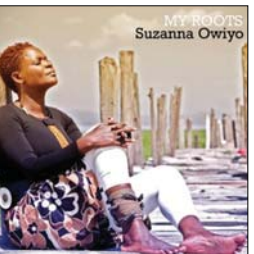
FXCD 358
SONDRE BRATLAND & ANNBJØRG LIEN: ALLE VEGNE
손드레 브라트란드 & 안비옥 리엔: 알레 베네
음유시인 손드레 브라트란드와 피플 연주자인 안비옥 리엔이 들려주는 알레 베네의 노르웨이 종교음악의 결정판. 2년동안 순회하며 노르웨이 전역의 교회에서 콘서트에 열중했던 그들만의 웅혼하고 명장한 노르웨이 가스펠 송, 민속악기 '피플'을 비롯한 정통 포크음악의 접근으로도 충분히 성의의 섬유 위에 찍힌 음표와 진배없는 차원을 들려준다.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브외른 올레 라쉬가 음악 감독을 맡았다. 안비옥 리엔의 2002 라이브 음반이후에 브라트란드와 몽클한 교감으로 식어가는 가슴마다 봄빛처럼 깨우고 있다.



FXCD 360
SKRUK & MAHSA VAHDAT: I VINENS SPEIL
스크룩 & 마샤 바닷: 루미와 하페즈의 수피음악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합창단 스�크룩과 중동사막을 건너온 재즈 보컬 마샤 바닷이 들려주는 루미와 하페즈의 수피 음악. 13세기에 활동한 잘랄루딘 루미는 이란의 시인이자 이슬람 신비주의의 상징이다. 그의 시는 코란에도 수록되어 있을 정도. 하페즈는 작은 뒤에 명예회복) 이란의 최고 서정 시인이자 신비주의자의 페르시아인 송을 노르웨이 교회당에서 재즈 형식으로 담아낸, 특별한 화음이 낯선 미지의 모음을 들려준다.



FXCD 362
KARI BREMNES: FANTASTISK ALLEREDE
카리 브렘네스
카리 브렘네스는 1956년생으로 노르웨이와 북유럽에서 활동하며 괴롭고 건조한 인생들에 맑고 깊은 나비의 날개 짓을 펼쳐 보이는 뮤즈다. 카리 브렘네스의 데뷔 30주년 기념음반. 13장의 음반을 발매한 저력 끝에 실루엣처럼 남기는 이 웅송그린 곡들과 환희들... 후미진 작은 역의 감동처럼 전작보다 훨씬 어쿠스틱하고 비좁은 반경에서 속삭이는 것 같다. 과격차량들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작고 질긴 알스트로메리아. 언어적 곡예처럼 거친 호흡의 원시성으로 여겨지는 연주에 시종일관 가냘픈 새의 목소리가 없어서 시종 낮고 깊게 충돌한다. 꽃의 몸에서 추출한 향수와 같이 이 30주년 기념음반의 향기는 너무도 알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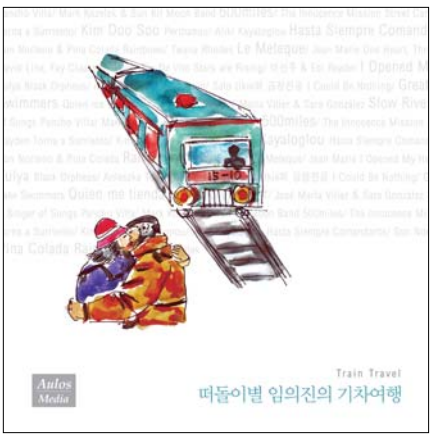
FXCD 361
SUZANNA OWIYO: MY ROOTS
수잔나 오위오
수잔나 오위오는 아프리카 케냐의 여성 아티스트다. 그녀는 음악가뿐만 아니라 흑인인권운동가이기도 하다. 뉴욕에서 열린 만델라 콘서트를 비롯 노르웨이에서 가진 노벨상 수상 기념 콘서트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런던과 파리를 오가며 <나의 뿌리>를 찾아다니다가 제 조국의 나랏말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지구환경보전과 전쟁 없는 평화, 여성 권익신장, 약물중독 치유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오직 어쿠스틱기타와 붐고 같은 악기로만 단출하게 담은 음반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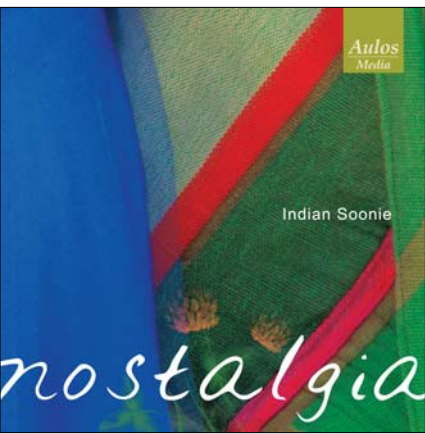
FXCD 354
STEPHEN BRANDT HANSEN: I JULENS LYS
스테판 브란트 한센: 크리스마스 불빛 아래
스테판 브란트 한센은 우리를 크리스마스 불빛 아래로 데려간다. 레파토리는 가장 많이 듣는 베스트 멜로디, 그 밖에 새로 쓰여진 노래들도 노르웨이의 깊고 울울한 겨울의 풍경을 섬섬이 담아냈다. 스테판은 스칸디나비아 특유의 목청을 지니고 있는 뮤지컬 가수로 골든 여퍼치너프상을 수상했으며 BBC 올해의 목소리상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다. 영화 미션의 주제를 비롯하여 오르간과 피아노의 적절한 반주 아래 크리스마스 캐럴을 그 다운 미성으로 조목조목 담아내고 있는 이 음반은 처음부터 가선 웅장한 교회음악의 지하성소를 경험하게 만든다. 이베르 크레이브의 오르간과 피아노 반주와 지그문트 그로브의 하모니카 연주, 마리안 리츠란트의 합창음악은 '오 홀리 나잇', '뷰티풀 세이비어'를 비롯하여 '사일렌 나잇' 등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북국의 캐럴들이 금방 캔 보석처럼 화사하게 쏟아져 내린다. 이 눈부신 크리스마스 불빛 아래 귀를 모아보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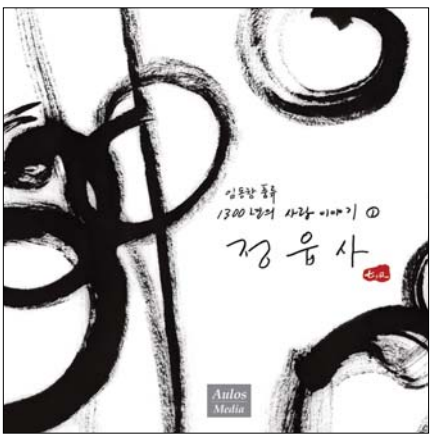
FXCD 364
VARIOUS ARTISTS: VÅKENATT FOR HARDANGER
(Vigil for Hardanger) is now here
아름다운 노르웨이의 허파와 같은 숲 허당거를 개발로부터 지키려는 국민적 시위에 함께한 11명의 아티스트들이 그 역사적인 행진에 마침표를 그으며 이 음반을 묶었다. 45미터 높이의 대형 전봇대를 92 킬로미터 구간에서 놓기로 한 개발정책에 반대한 가수들은 올레 파우스, 윌리엄 헛, 해보 크루캐빅, 베네딕트 모르셋, 아스네 바란트 노드리, 닐스 페테 몰비어, 브와르네 브윈드보, 오베 루, 에나 모월스네스, 손드레 브라트란드 등이다. 이 음반을 녹음한 그랑빈 교회는 허당거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지역의 교회였는데, 교회는 환경운동의 전진기지 노릇을 톡톡히 했고, 결과는 이들의 승리! 13세기경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가장 오래된 교회종이 있는 이 교회당에서 그들은 노르웨이 국가 "누가 내 나라를 보았는가?"에, 그 아름다운 천혜의 환경에, 충실히 음악으로 답하고 있다.



AMC2-067
떠돌이별 임의진의 [기차여행]
<여행자의 노래>로 독특한 월드뮤직을 들려주고 있는 떠돌이별 임의진, 그가 세계 곳곳에서 그러모은 기차 여행에 얹힌 화곡곡들. 김두수의 <돌아오라 소렌토로>, 버들치 시인 박남준의 시낭송, 북한 여가수 이선주와 에디 리더가 함께 노래한 초희귀 자장가, 쿠바의 음유시인이 부른 <내게 드리운 손길>, 재발매 선물로 <슬로로 리버>가 칠방칠방 기차를 따라 흘러간다. 기차여행자! 로그아웃의 그날까지 이 노래를 들으며 기차를 타라, 여행하라!



AMC2-107
인디언 수니(Indian Soonie): Nostalgia 노스텔지아
싱그러운 볼바람 따라 칠방거리며 여행하는 포크 가수 인디언 수니.
여섯 줄 통기타와 멜로디언, 까흔, 나긋나긋 귀속말로 노래하는 듯한 인디언 수니가 소중한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세계인의 애창노래. 20세기 노래들을 21세기 풍의 청아한 목소리로 듣는 즐거움, 인디언 수니의 목소리만이 줄 수 있는 매력이자 최고의 선물이다. 일본의 정성급 만돌린 연주자 야노 토시히로와 타악기 연주자 이토 고키를 비롯 그녀의 오랜 음악동료인 기타리스트 박우영, 김두수의 하모니카 소리까지 어울쳐 흐른다. <Old Black Joe>, <Danny Boy>, <Alohae>, <Oh Susanna>, <Twinkle Twinkle Little Star>, <O Sole Mio>, <Auld Lang Syne> 이상 주옥같은 15곡의 달콤한 노래들이 살짝 웃음 지으며 푸른 새봄을 노래한다.



AMC2-115
'임동창 풍류' 1300년의 사랑 이야기① [정음사]
신명의 음악가 임동창.
이 시대 어떤 음악을 듣고 즐길 것인가? 임동창 음악을 담은 음반 '1300년의 사랑 이야기-정음사'를 선택한 당신이라면, "우리 시대 무슨 음악을 들어야 할까?"라는 질문이 크게 거북스럽지 않을 것이다.



AMC2-121
First Impression 13 Years AIn Debut
14세 피아니스트 윤아인을 주목한다!!
세계 최고의 음악학교 모스크바 중앙 음악학교가 주목하고 있으며, "영재 위의 영재"라는 찬사를 받으며 성장하고 있는 14세 피아니스트 윤아인의 어린 시절을 마감하는 기념비적인 음반.
**스칼라티 <소나타>, 모차르트 <아,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변주곡>, 멘델스존 <론도 카프리치오> 등 15곡 수록.

KBS 클래식 FM과 아울로스 미디어가 함께 그린 음악풍경화 [사계]

봄날 오후의 설렘,
여름밤의 추억,
가을 아침의 투명한 서정,
그리고 겨울 저녁의 침묵. 그들과의 동행 ...

12년 전의 일기장을 들여다보듯 ...

12년 전의 일기장을 들여다보듯 시간을 뛰어넘어 1998년으로 되돌아간다. 낡은 책장 속의 오래된 책들이 시간의 흔적만큼 정겨운 책 내용을 품고 있듯이 음반 속의 글도, 사진도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그 안의 음악들은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고 있음을 새삼 느낀다.

누군가는 물을 것이다. 예전과 너무나 달라진 첨단 미디어 시대, 마음만 먹으면 어떤 경로든 쉽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옛 음반을 다 시세상에 내어놓으려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라디오이기 때문이라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라디오에 기대는 아날로그적인 정서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나 또한 라디오를 친구삼아 젊은 날을 보냈고, 지금도 여전히 라디오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사계’ 음반은 라디오와 더불어 시간을 보내고 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위한 작업이었다. 12년 전 ‘사계 시리즈’를 만드는 동안 경험했던 행복 한 고통들을 떠올려 본다. 모스크바에서 차이코프스키 공극을 취재할 때 만났던 사람들의 소박하고도 깊은 음악사랑. 자신들이 가진 가장 깨끗한 옷을 차려 입고 성스러운 표정으로 음악회장으로 들어서던 그들의 눈빛을 기억한다. 그 눈빛엔 이념도, 가난도 없었다. 오로지 음악에 대한 사랑만이 넘쳤다. 클래식의 힘은 바로 그런 것이리라. 오랜 세월 변함없는 친구처럼, 작은 물결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배처럼 깊이와 넓이를 가진 음악. 이 음반이 애청자들 곁에서 오랜 친구처럼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

‘사계 시리즈’를 다시 준비하면서 지키려 했던 가장 큰 원칙은 ‘아쉬움이 있더라도 첫 번째 작업의 흐름을 그대로 살리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저작권이나 음원 사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연주자나 곡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가을’의 타이틀곡으로 발매 당시 화제를 모았던 Inessa Galante의 Ave Maria를 실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몇 년 전 레코드실에서 발견한 보석같은 Irina Arhipova의 Ave Maria를 대신 담게 되어서 역설적인 기쁨을 느낀다. 메조소프라노와 오르간, 트럼펫, 그리고 성당의 깊은 울림이 또 다른 감동을 주리라 생각한다. 이 음반에 수록된 음악들이 최고의 명반, 최고의 명연주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다 많은 애청자들이 클래식에 한걸음 다가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내 방송생활 25년, 나의 젊음을 관통한 클래식 FM과 함께한 시간이 이 안에 응축되어 있다. 이 겨울, 나는 참 행복하다. 이 음반을 다시, 클래식을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께 내어 놓을 수 있어서.....

프로듀서 김혜선



AMC2-117
봄:
봄.날.오후
봄날 오후의 햇살이 유리창을 비출 때 유리창에 남은 손자국처럼
우리 마음에 남은 봄날의 음악들...
한스 베르가: 무곡/ 비제: 아를르의 여인 모음곡 2번 - 미뉴엣/ 슈베르트: 곤돌라의 뱃사공 D.809/ 롯시니: 현을 위한 소나타 3번 - 3악장 모데라토/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 op.11 - 2악장 로망스/ 바흐: 안나 막달레나를 위한 소품집 - 미뉴에트/ 모차르트: 플루트 4중주 K.285b - 1악장 알레그로/ 하이켄스: 세레나데/ 베토벤: 바이얼린 소나타 5번 op.24 <봄> - 1악장 알레그로/ 헨델: 오페라 <세르세> - '그 어디에도 없을 나무 그늘이여'/ 바하: 두 대의 바이얼린을 위한 협주곡 BWV.1043 - 2악장 라르고 마 논 탄토/ 클로드 볼랑: 플루트와 재즈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 센티멘탈/ 루빈스타인: F 장조의 멜로디/ 오스트레일리아 민요: 춤추는 마틸다



AMC2-118
여름:
여.름.밤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바다가 있다.
바다로 가는 당신의 여행 가방에 이 음악들을 넣어주고 싶다.
쇼스타코비치: 재즈 모음곡 2번 - 왈츠 2번/ 비발디: 류트 협주곡 D장조 RV.93 - 2악장 라르고/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7번 <템페스트> - 3악장 알레그레토/ 아일랜드 민요: 여름날의 마지막 장미/ 오펜바흐: 두 대의 첼로를 위한 모음곡 2번 - 3곡 폴로네이즈/ 벨슈테트: 나폴리 - 변주곡이 있는 칸초네 나폴리타나/ 아일랜드 민요: 숲 속의 물레방아/ 파가니니: 바이얼린 협주곡 2번 op.7 - 3악장 론도 '라 캠파넬라'/ 빌라-로보스: 브라질 풍의 바흐 제5번 - 아리아/ 스메타나: 교향시 <나의 조국> - 몰다우/ 드뷔시: 아라베스크 1번/ 사티: 짐노페디 1번/ 매기의 추억/ 반젤리스: 불의 전자



AMC2-119
가을:
가.을.아침
나에게서 당신에게로...
단풍잎처럼 사무치게 우리 가슴을 물들이는 가을의 음악
카치니 - 바빌로프: 아베 마리아/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K.467 - 2악장 안단테/ 존 필드: 녹턴 5번/ 베토벤: 아델라이데 op.46/ 쇼스타코비치: 로망스/ 타레가: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스벤젠: 로망스 op.26/ 포레: 로망스 op.17-3/ 브루흐: 콜 니드라이/ 푸치니: 오페라 <잔니 스키키> -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마르첼로: 오보에 협주곡 D단조 - 2악장 아다지오/ 브람스: 현악 6중주 1번 op.18 - 2악장 안단테 마 모데라토



AMC2-120
겨울:
겨.울.저.녁
양상한 겨울 정원을 쓰다듬는 겨울 햇살처럼
시린 우리 마음을 쓰다듬는 선율...
스비리도프: 올드 로망스/ 아일랜드 엔젤: By the light/ 쇼팽: 녹턴 21번 C단조/ 멘델스존: 무언가 op.109/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op.18 - 1악장 알레그로/ 바그너: 오페라 <탄호이저> - '저 념별의 노래'/ 비발디: 화성의 영감 op.3-6, 1악장 알레그로/ 포레: 시칠리아노/ 드보르작: 피아노 3중주 E단조 op.90 <동기> - 1악장 렌토 마에스토소/ 모차르트: 바이얼린 소나타 E단조 K.304 - 1악장 알레그로/ 페르골레자: <스타바트 마테르> - 12곡 '내 육체는 썩을지라도 내 영혼은 당신의 선함을 찬양하리니'/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 E단조 op.64 -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단단히 걸어 잠갔던 마음의 두터운 벽을
부드럽게 노크하는 노래
그리고 거기에 푸른 창을 달아주는 노래들...

음악이 흐르는 저녁 창가에서...

빈틈없이 꽉 짜여져 돌아가는 일상의 시간과 다투고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 생각과 다투고 소란스러운 소음과 다투고, 각박한 세상과 다투고...그렇게 날카롭게 각이 섰던 마음의 모서리들이 저녁이 되면 조금씩 부드럽게 풀어져 내립니다. 현실의 날카로운 각들이 허물어진 그 마음이 저절로 창가로 향합니다.

차 안에서 흔들리며 창밖을 응시하고 있는 사람, 병실에서 쓸쓸하게 창밖을 보는 사람, 따뜻한 집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창밖을 보는 사람, 동료들과 반가운 시선을 나누며 창밖을 보는 사람... 그렇게 저녁 창가에서 창밖을 응시하는 사람들...마음에 음악이 흐르면 마음의 감박이를 켜고 현실이 아닌 다른 시간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유롭게 꿈의 공간으로 오르고, 먼 추억의 계단을 내려가 보고, 또 이 별에서 너무 멀기는 하지 만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사는 저 다른 별로 상상의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녁 창가에서 음악을 듣고 나면 뭔가 몽글하게 힘줄이 솟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솟아올라 줍니다. 그 느낌은 욕심이나 욕망 같은 것들을 깨끗하게 초기화시켜줘서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자극이 되어줍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 6집, 저녁 창가에서〉는 그렇게 해가 천천히 지는 창가에 서서 노을이 지는 것을 젖은 시선으로 응시했던 당신에게 하룻밤을 차가운 창문에 이마를 대고 껍박 지새보았던 당신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의 벽은 존재합니다. 단단히 걸어 잠갔던 그 마음의 벽에 음악으로 '푸른 창'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잠금 장치를 풀고 세상 속으로 환하게 미소지으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안타깝게 그리워하던 사람이 거기... 서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세상의 모든 음악〉제작진

싱그러운 봄바람 따라 찰랑거리며 여행하는
포크 가수 인디언 수니

여섯 줄 통기타와 멜로디언, 까혼, 나긋나긋 귀속말로 노래하는 듯한 인디언 수니(Indian Soonie)가 소중한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세계인의 애창노래. 일본의 정상급 만돌린 연주자 야노 토시히로와 타악기 연주자 이토 고키를 비롯 그녀의 오랜 음악동료인 기타리스트 곽우영, 김두수의 하모니카 소리까지 어울쳐 흐른다.

20세기 노래들을 21세기 풍의 청아한 목소리로 듣는 즐거움, 인디언 수니의 목소리만이 줄 수 있는 매력이자 최고의 선물이다.

누구에게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어느 날 길을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딱 붙들고 꿈쩍도 할 수 없게 만들던 음악. 추억의 한 순간을 순식간에 '불러오기'하던 음악을 듣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낙엽이 떨어지던 늦가을의 거리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전파상의 스피커에서 그 시대의 아이콘과도 같았던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으며 가슴 저릿저릿하던 추억이 있을 것이다. 인디언 수니의 목소리가 그렇다. 인디언 수니의 노래는 '불러오기' 실행버튼 같다. 고대의 유적이 겹겹이 묻힌 지층처럼 추억이 겹겹이 쌓인 우리 마음속에서 잊고 지내던 기억들을 순식간에 불러 온다. 그 기분 좋은 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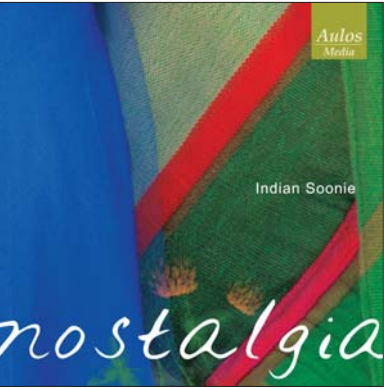
인디언 수니의 목소리는 성능 좋은 망원렌즈 같다. 오래 잊고 있던 것, 멀리 두고 까맣게 잊고 있던 것을 순식간에 우리 앞으로 당겨 놓는다. 이 속삭임을 힘겨운 당신에게 위로라는 리본으로 묶어 선물하고 싶다. 이 투명함을 지닌 당신에게 배개로 내어주고 싶다. 이 그리움을 당신에게 스카프로 만들어주고 싶다. 아버지 세대가 부르시던 〈Old Black Joe〉, 마치 우리 민요처럼 친근한 〈Danny Boy〉, 오르골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맑은 선율 〈Kumbaya〉, 교과서에 실려 있던 〈Oh Susanna〉에 이르기까지, 인디언 수니의 목소리는 시간의 이쪽과 저쪽을 가볍게 넘나든다. 그녀의 목소리에 실려 부활한 노래들이 우리에게 속삭인다. 아름다운 것은 시간의 흐름을 이겨낸다고...

20세기 노래들을 21세기 풍의 청아한 목소리로 듣는 즐거움, 인디언 수니의 목소리만이 줄 수 있는 매력이자 최고의 선물이다.

아울로스 미디어 기획부



- 세상의 모든 음악 6집:**
저녁 창가에서
- 01 Quelli Chi Un Anu A Nimu(Those Who Are Alone In The World)/ I Muvrini
 - 02 Trende La Medianoche(Midnight Train)/ Gabriela
 - 03 Kontrapas/ Xabier Lete
 - 04 Como Sera Manana(내일은 어떨까)/ Polo Montanez
 - 05 Butterfly/ Rajaton
 - 06 Caruso/ Antonio Forcione(guitar) & Sabina Sciubba(vocal)
 - 07 This Lullaby/ Carol Welsman
 - 08 Missing(inst)/ 영화 '워낭 소리' 중 Ending Credit
 - 09 좋은 나라/ 한충은
 - 10 L'ete Indien(Indian Summer) (inst)/ Quadro Nuevo
 - 11 Masikini(Poverty)/ Eyuphuro
 - 12 Mi' ma' amakim(Out Of The Depths)/ The Idan Raichel Project
 - 13 Hallelujah/ Sofia Pettersson
 - 14 Colin L O' Riordan(inst)/ Scottish Fiddle Orchestra



Indian Soonie 인디언 수니:
Nostalgia

Old Black Joe/ Home On The Range/ Down By The Salley Garden/ Danny Boy/ Alohae/ Waltzing Matilda/ Kumbaya/ Wayfaring Stranger/ Hard Time Come Again No More/ Oh Susanna/ Twinkle Twinkle Little Star/ O Sole Mio/ La Cucaracha/ Pine Tree/ Auld Lang Sy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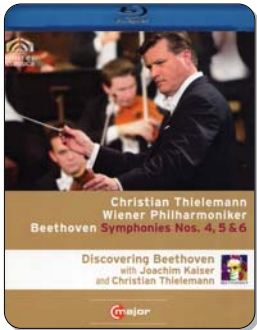
북미의 아름다운 섬그늘 하와이 BYU에서 공부하고, 오랜 날을 여행하며 떠돈 인디언 수니는 보기 드문 실력을 갖춘 여성 싱어 송 라이터다. 크고 작은 환경운동 일환의 생명평화 음악회는 물론이고, 〈저녁 강〉의 애쉬드 포크록 가수 김두수의 공연에 게스트로 출연하는 등, 그 실력과 음악 정신을 두루 인정 받아왔다. 발매 음반으로는 〈1집 '내 가슴에 달이 있다'〉, 〈2집 '비오는 날 해바라기'〉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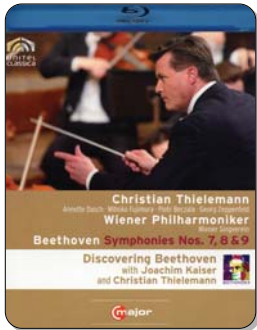
www.cmajor-entertainment.com



C-Major 704804



C-Major 705004



C-Major 705204



C-Major 704304



C-Major 705504

도니제티: 마리아 스투아르다

피오렌차 체를린스(마리아), 소니아 가나시(엘리자베타), 호세 브로스(로베르토) 외/
파브리치오 마리아 카르미나티/ 베네치아 라 페니체 오페라

두 스타급 여성 성악가들의 불꽃 튀는 열연을 담은 최신 영상물

도니제티는 16세기 영국 튜더왕가의 여인들을 소재로 3편의 역사 오페라를 완성하였다. 헨리 8세의 두 번째 부인인 앤 불린을 주인공으로 <안나 불레나>, 그의 딸인 엘리자베트 1세와 스코틀랜드의 페어왕 매리 스튜어트의 갈등을 다룬 <마리아 스투아르다>, 만년의 엘리자베트 1세의 은밀한 사랑을 소재로 한 <로브레토 데버루>가 흔히 도니제티의 '여왕 3부작' 이라고 불린다. 그 중 두 번째인 <마리아 스투아르다>는 전형적인 벨칸토 오페라로서 극적인 요소와 서정적인 매력을 겸비한 매력적인 아리아들과 벨런스가 뛰어난 중창(특히 2막 마지막 두 히로인의 경연은 이 오페라의 하이라이트다)이 조화를 이룬 수작이다. 본 영상은 2009년 4/5월 베네치아의 라 페니체 극장에서 있었던 최신 공연실황으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두 여성성악가 피오렌차 체를린스와 소니아 가나시의 열창과 스페인 출신의 명테너 호세 브로스의 미성이 데니스 크리프의 산뜻하고도 기하학적인 무대를 배경으로 아름답게 펼쳐진다.

베토벤: 장엄미사

크라시미라 스토포야노바(sop)/ 엘리나 가란차(alt)/ 마이클 웨이트(te)/ 프란츠 요제프 젤리히(bass)/
드레스덴 슈타츠오퍼 합창단/ 크리스티안 틸레만/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 폭격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장엄' 그 자체의 장엄미사

2차 대전의 유럽 전선이 거의 막바지에 달했던 1945년 2월 드레스덴을 휩쓸었던 연합군의 융단폭격에 의해 25,000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다.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는 1951년부터 매년 이 참혹한 비극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콘서트를 지속해오고 있다. 본 영상은 지난 2010년의 추모콘서트 실황을 담은 것으로, 2012년부터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카펠마이스터를 맡을 예정인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를 맡았다. 여러 작곡가들의 레퀴엠들을 연주해왔던 예년과 달리 베토벤의 장엄미사를 택했는데, 장중하면서도 엄숙한 이 걸작의 속성은 추모콘서트의 분위기와 훌륭한 조화를 이룬다. 틸레만 특유의 장대한 스케일과 가관차를 비롯한 정상급 솔리스트들의 열창, 그리고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질고 부드러운 사운드가 어우러진 연주 자체의 완성도도 대단하지만, 공연 이후에 박수를 생략하고 침묵으로 고인들을 추모하는 이 콘서트의 전통은 장엄미사의 경건함을 한층 더 감동적으로 부각시켜준다.

틸레만과 빈 필하모닉의 베토벤 교향곡 전집 Vol.1 베토벤: 교향곡 1,2,3번, 코리올란서곡, 에그몬트서곡

틸레만과 빈 필하모닉의 베토벤 교향곡 전집 Vol.2 베토벤: 교향곡 4,5,6번

틸레만과 빈 필하모닉의 베토벤 교향곡 전집 Vol.3 베토벤: 교향곡 7,8,9번

- 구성 : 콘서트 + 다큐멘터리 1 Blu-ray (한글자막 제공)
- 세계 최고의 악단 빈 필과 21세기 지휘계의 총아 틸레만의 대 장정
- HD고화질과 5.0서라운드 사운드로 듣는 최신 미디어의 교향곡 사이클
- 황금빛 음향으로 울려 퍼지는 빈 무지크페라인 홀의 생생한 라이브 영상물(베토벤 교향곡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담은 다큐멘터리)
- 베토벤 교향곡에 대한 독일 원로 비평가 요하임 카이저와 크리스티안 틸레만의 심도 있는 분석 대담
- 푸르트벵글러, 카라얀, 번스타인 등의 과거 거장들의 연주들과의 직접 비교분석

** 자세한 내용은 page 2~5 'Cover Story' 참고



C-Major 704504

바그너: 니벨룽의 반지 하이라이트

라 푸라 델스 바우스/ 주빈 메타/ 오케스트라 데 라 코뮤니타트 발렌시아나

상상 그 이상을 눈앞에 펼쳐놓았던 21세기형 '링'의 정수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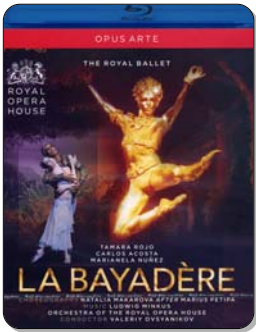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스페인 발렌시아에 위치한 최첨단 공연장인 팔라우 데 레자르의 무대에 올랐었던 카를로스 파드리사의 바그너 '링' 프로젝트는 바르셀로나가 자랑하는 공연그룹인 라 푸라 델스 바우스의 아크로바틱에 가까운 행위예술과 무대전면을 가득 메운 화면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3D영상과 홀로그램, 그리고 영화 제5원소의 그것을 연상케 하는 미래지향적인 의상과 각종 기계장치 등을 총동원하여 스타워즈 세대의 눈높이를 완전히 충족시켜주는 멋진 SF형 무대로 21세기형 '링'으로 유럽 오페라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음악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부분을 위주로 간추려놓은 이 하이라이트 영상은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훌륭한 안내서 역할을 해줄 것이다. 100분 분량의 공연영상과 제작과정에 관한 3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로 구성된 이 영상물만으로 4부작 전체의 면모를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겠지만,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연출상의 특징 등을 맛보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opus ARTE www.opusarte.com

라 바야데르

로얄 발레단 최고의 간판스타들이 펼치는 러시아 고전 발레의 걸작

<라 바야데르>는 루트비히 민쿠스의 음악 마리아우스 프리파의 안무로 1877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초연되었던 러시아 고전 발레의 걸작이다. 고대 인도를 배경으로 사원의 무희인 니키아와 그녀를 사랑하는 젊은 장군 솔로르, 그리고 솔로르와 악혼한 사이인 감자티 공주 사이의 삼각관계에서 빚어지는 안타까운 배신과 죽음, 그리고 영혼의 세계인 '망령의 왕국'에서 벌어지는 재회와 용서를 다룬 명작이다. 이국적인 배경과 공주가 포함된 삼각관계의 스토리는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를 연상케 한다. 서구에서는 1960년대에 누리에프에 의해 '망령의 왕국' 부분이 먼저 소개되어 각광을 받았고 그 뒤를 이어 이탈리아 마카로바가 작품 전막에 대한 프로덕션을 탄생시켰다. 역시 마카로프의 프로덕션에 기초한 본 영상은 영국의 자존심 로얄 발레단이 2009년 1월에 완성한 최신 실황으로, 타마라 로호(니키아), 카를로스 아코스타(솔로르), 마리아벨라 누네스(감자티)라는 환상의 슈퍼스타 트리오가 무대를 압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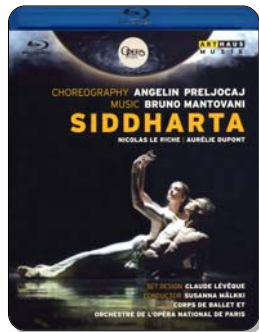


OpusArte OABD 7079D



ARTHAUS
MUSIC

www.arthaus-musi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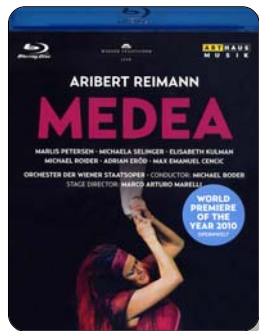
Arthaus 101 558

프렐조카주: 발레 <싯다르타>

안무: 앙줄랭 프렐조카주, 음악: 브뤼노 만토바니, 파리 국립 오페라 발레단

육체의 아름다움을 통해 표현된 석가모니의 구도의 길

알바니아계의 프랑스 무용가 겸 안무가 앙줄랭 프렐조카주는 현재 유럽 현대무용계에서 가장 큰 화제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인물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폭력적으로 재해석하여 충격을 주었는가 하면 <공원>에서는 20세기 안무가가 만든 파드되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감각적인 아름다움과 에로티시즘을, 앞서 DVD로 소개되었던 <메데아>와 <MC/14-22>에서는 각각 잔혹한 비속살인과 최후의 만찬의 모티프를 감각적으로 표현했었다. 그의 최신 안무작이자 2010년 파리 바스티유 극장에서의 실황인 <싯다르타>는 프렐조카주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파리 국립오페라 발레단이 공연한 것으로, 제목 그대로 왕자로서의 영예와 아름다운 아내 요수다라를 포기하고 구도의 길을 떠나는 싯다르타가 여러 유혹을 이겨내고 마침내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강렬한 안무를 통해 표현한 작품이다. 아방가르드 계열의 클래식에 락음악과도 같은 강렬한 전자기타 리프를 접목한 프랑스의 젊은 작곡가 브뤼노 만토바니의 음악도 대단히 인상적이다.



Arthaus 101 552

라이만: 메데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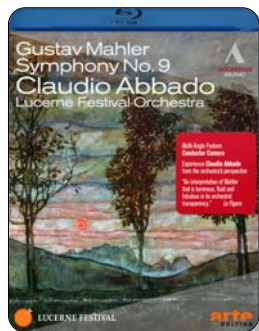
마를리스 페테르센(메데아), 마카엘라 젤링거(크로이사), 아드리안 에페드(아손), 미카엘 로이더(크레온), 엘리자베트 쿨만(고라) 외/ 미카엘 보더/ 빈 슈타츠오퍼

고대 그리스 최고의 악녀가 라이만의 오페라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다

메데아(메데이아)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최고의 악녀로 유명한 캐릭터다. 클로키스의 왕 아에테스의 딸인 메데아는 아름다운 외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흠모하는 아르고스호의 영웅 이아손을 돕기 위해 남동생을 찢어 죽일 정도의 잔인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후일 메데아는 아손(이아손)이 코린트의 공주 크로이스(글라우케)와 결혼하게 되자 크로이스와 자신과 아손 사이에 낳은 두 아이들을 죽임으로써 자신을 버린 아손에게 복수한다. 메데아의 이야기는 후일 여러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17세기 카발리를 필두로, 칼다라, 샤르팡티에, 케루비니, 마이어, 메르칸테, 미요 등이 이에 관한 오페라를 남겼는데, 그 중 케루비니의 작품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현존 최고의 독일 오페라 작곡가로 각광받고 있는 라이만이 이 대열에 합류하였다. 2010년 2월에 빈 슈타츠오퍼에서 초연된 오페라 '메데아'는 코린트 주류사회에서 배척당하는 이방인으로서의 메데아의 갈등과 아손에 의해 부당하게 강탈된 황금양털을 가장 적절한 장소인 델피의 신전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메데아의 노력에 집중함으로써, 과거 어느 관련 작품들에서보다 메데아를 긍정적으로 묘사하였다.



www.accentu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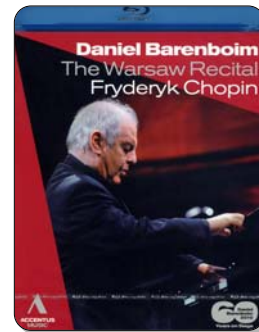
Accentus ACC10214

말러: 교향곡 9번

클라우디오 아바도/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노거장의 손끝으로 정성껏 빚어낸 감동의 말러 교향곡 9번

말러 애호가들이 학수고대했던 클라우디오 아바도/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말러 교향곡 9번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었다. 아바도가 로마에서 말러 유겐트오케스트라를 지휘했던 2004년의 동곡 실황도 호평을 받긴 했지만, 많은 아바도의 팬들과 말러리안 들은 이 시대 최고의 솔리스트들이 포함된 명실상부한 슈퍼스타 오케스트라인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통해 이 감동적인 말러의 마지막 완성작을 감상하길 소망했을 것이다. 2010년 8월 루체른 KKL에서의 실황을 편집 수록한 본 영상물은 기대에 부응하는 감동적인 연주를 담고 있다. 달관의 경치를 보여주는 아바도의 얼굴과 손끝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적이며, 이 시대 최고의 관악 테크니션들이 정성껏 빚어낸 투명한 텍스처와 정교한 초절교는 이 걸작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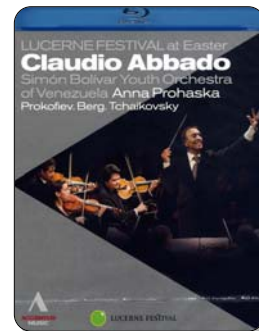


Accentus ACC10202A

바렌보임의 바르샤바 쇼팽 리사이틀

쇼팽 탄생 200주년을 기념한 다니엘 바렌보임의 바르샤바 리사이틀

프레데릭 쇼팽은 1801년 3월 1일(혹은 2월 22일)에 태어났으니 2010년은 그의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였다. 그래서 수많은 쇼팽 연주회가 세계 각지에서 열렸다. 이 영상물은 2월 28일 쇼팽의 고향 바르샤바에서 펼쳐진 다니엘 바렌보임의 리사이틀 실황이며 모든 곡이 쇼팽으로 채워졌다. 지금은 지휘자로 더 유명하지만 바렌보임은 원래 피아니스트였고 지금도 바쁜 시간을 쪼개어 두 활동을 병행한다. 그러다보니 예전에 자주 연주했던 쇼팽을 최근에 다룰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바렌보임이 누군가? 2007년 8월, 영국의 텔레그래프가 발표한 '현존하는 100대 천재'에서 전체 19위, 음악가로서는 3위, 순수연주가로서는 1위에 선정된 귀재답게 쇼팽의 본질에 단번에 육박해 들어간다. 소나타 제2번을 위시하여 왈츠, 폴로네이즈, 환상곡, 마주르카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고 있으며, 모두 쇼팽에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하는 바르샤바의 청중들은 열렬한 박수로 바렌보임에게 찬사를 보냈다.



Accentus ACC10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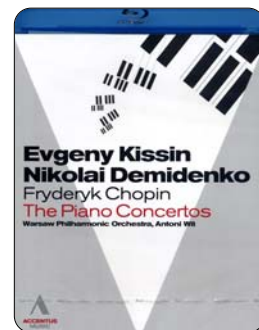
2010년 루체른 부활절 페스티벌 실황

프로코피예프: 스키타이 모음곡/ 베르크: 루루 모음곡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6번 '비창'

안나 프로하스카(sop)/ 클라우디오 아바도/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

이 시대 최고의 마에스트로와 희망을 연주하는 젊은이들의 감동적인 만남

현재 음악계 최고의 핫이슈 메이커들이 결합했다. 명실상부한 우리시대 최고의 거장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베네수엘라 '엘 시스템아'의 값진 성과물인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최신 영상이 DVD로 발매된 것이다. 2010년 3월 루체른의 KKL에서 있었던 콘서트실황으로, 아바도는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대신 이 화제만발의 젊은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감동적인 공연을 이끌어내었다. 프로코피예프의 '스키타이 모음곡'에서 베네수엘라의 젊은 연주자들은 자신들의 수장 두다멜의 휘하에서 보여줬던 것에 뒤지지 않는 강렬한 열기의 연주를 들려주며, 베르크의 '루루 모음곡'을 노래한 소프라노 안나 프로하스카의 절창도 인상적이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차이코프스키의 '비창 교향곡'이다. 연주가 종결된 이후 숨 막힐 듯한 정적에 이어서 쏟아지는 전 관객들의 기립박수와 노거장과 젊은 연주자들 모두의 눈가에 촉촉이 맺히는 눈물은 이 연주회의 감동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Accentus ACC10202B

쇼팽 : 피아노협주곡 1, 2번 (+ 마주르카 Op.17-4, '혁명' 에튀드, 왈츠 E단조)

니콜라이 데미덴코(1번), 에프게니 키신(2번)/ 안토니 비트/ 바르샤바 필하모닉

쇼팽 탄생 200주년을 축하하는 키신과 데미덴코의 감동적인 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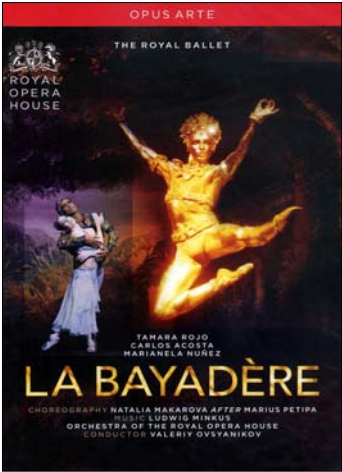
2010년 2월 27일 쇼팽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서 작곡가의 고향인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특별한 기념콘서트가 펼쳐졌다. 안토니 비트가 이끄는 바르샤바 필하모닉의 든든한 반주에 맞춰서 러시아가 배출한 최고 명성의 두 피아니스트들이 쇼팽의 협주곡 1,2번을 한 무대에서 연이어 연주한 것이다. 에프게니 키신과 니콜라이 데미덴코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어려서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자랑했던 신동 연주자와 뒤늦게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대기만성형의 연주자라는 배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 두 연주자는 모두 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반의 마에스트로들로 음악계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들이 한 날 한 무대에 섰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랍지만, 두 연주자 모두가 각자의 뚜렷한 개성과 완벽한 연주기교를 바탕으로 빚어낸 걸출한 연주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영상물은 쇼팽 음악 애호가들에게 놓쳐서는 안 될 값진 선물이 될 것이다. 데미덴코가 앙코르로 연주한 마주르카 Op.17-4와 키신의 앙코르 곡들인 '혁명' 에튀드와 왈츠 E단조의 감동도 각별하다.

 **OpusArte DVD**

www.opusarte.com

 **Dynamic DVD**

www.dynamic.it



Opus Arte DVD OA 1043D

밍쿠스: 라 바야데르

로알 발레단 최고의 간판스타들이 펼치는 러시아 고전 발레의 걸작

〈라 바야데르〉는 루트비히 밁쿠스의 음악 마리우스 프티파의 안무로 1877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초연되었던 러시아 고전 발레의 걸작이다. 고대 인도를 배경으로 사원의 무희인 니키아와 그녀를 사랑하는 젊은 장군 솔로르, 그리고 솔로르와 약혼한 사이인 감자티 공주 사이의 삼각관계에서 빚어지는 안타까운 배신과 죽음, 그리고 영혼의 세계인 '망령의 왕국'에서 벌어지는 재회와 용서를 다룬 명작이다. 이국적인 배경과 공주가 포함된 삼각관계의 스토리는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를 연상케 한다. 서구에서는 1960년대에 누리에프에 의해 '망령의 왕국' 부분이 먼저 소개되어 각광을 받았고 그 뒤를 이어 나탈리아 마카로바가 작품 전막에 대한 프로덕션을 탄생시켰다. 역시 마카로프의 프로덕션에 기초한 본 영상은 영국의 자존심 로알 발레단이 2009년 1월에 완성한 최신 실황으로, 타마라 로호(니키아), 카를로스 아코스타(솔로르), 마리아넬라 누네스(감자티)라는 환상의 슈퍼스타 트리오가 무대를 압도한다.

[보조자료]

○ 〈라 바야데르〉란 '인도의 무희'란 뜻이다. 무희 니키아는 용맹한 장군 솔로르와 몰래 사랑을 나누고 있다. 그러나 공주 감자티가 등장함으로써 비극은 시작된다. 솔로르는 니키아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고 니키아는 감자티가 보낸 독사에 물려 죽는다. 슬픔에 잠긴 솔로르는 환각 상태에서 '망령의 제국'의 니키아와 재회하고 영원한 사랑을 다짐한다. 이 발레에서 '망령의 왕국'은 〈지젤〉이나 〈백조의 호수〉2막에 필적하는 '발레 불랑'의 최고봉이지만 오랫동안 러시아만의 보물이었다.

○ 스페인이 배출한 이 시대 최고의 발레리나 중 한 사람인 타마라 로호, 쿠바 출신의 흑인 슈퍼스타 발레리노 카를로스 아코스타, 최근 로알 발레의 간판 히로인으로 급부상 중인 아르헨티나 출신의 발레리나 마리아넬라 누네스 세 사람이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흥분되는 발레 애호가들이 많을 것이다. 여기에 당당히 로알 발레단의 주역 무용수로 인기몰이 중인 재일교포출신의 최윤희가 1막의 파닥송 장면과 2막의 3 망령 중 하나로 등장한다.



Dynamic DVD 33651

슬레르: 디아나의 나무

로라 아이킨(디아나), 마이클 매니아치(아모레), 마르코 빈코(도리스토), 스티브 데이비슬럼(엔디미오네) 외/ 해리 비케트/ 바르셀로나 리세우 대극장

모차르트의 유력한 경쟁자였던 슬레르의 매력적인 오페라가 다시금 빛을 발한다.

스페인에서 태어나 빈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마르틴 이 슬레르는 모차르트에 비견될 만큼 큰 인기를 누렸던 작곡가다. 그가 1787년에 완성한 2막의 드라마 조코소인 '디아나의 나무'(L'arborg di Diana)는 모차르트의 3대 걸작 오페라의 초석을 제공했던 로렌초 다 폰테의 리브레토를 토대로 완성한 작품이다. 합스부르크 요제프 황제의 질녀와 작센 대공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위촉된 작품으로, 이 작품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살리에리의 '타라르'와 모차르트의 '돈조반니'도 역시 다 폰테의 리브레토로 만들어졌는데, 다 폰테는 이 세 오페라를 각각 아침, 정오, 저녁에 비유했었다. 모차르트의 걸작들에 뒤지지 않는 화려한 콜로라투라와 아름다운 선율이 가득한 매력적인 작품임에도 이후 세인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말았는데, 21세기에 들어와서 다시금 작품의 진면목이 제대로 평가받게 되었다. 본 DVD는 2010년 3월 바르셀로나의 리세우극장에서 있었던 프로덕션을 담은 것으로, 고전 오페라의 화사한 매력을 유감없이 맛볼 수 있다.

[2010년 Dynamic DVD 카탈로그 포함]



Dynamic DVD 33649

베르디: 팔스타프

루제로 라이몬디(팔스타프)/ 루카 살시(포드)/ 비르히니아 틀라(포드부인)/ 사비나 푸에르톨라스(나네타)/ 친치아 데 몰라(퀴클리부인)/ 티베리우스 시무(펜톤) 외/ 파울로 아리바베니/ 오페라 르와알 드 알로니

최고의 베이스바리톤 루제로 라이몬디가 노래한 2009년의 최신 팔스타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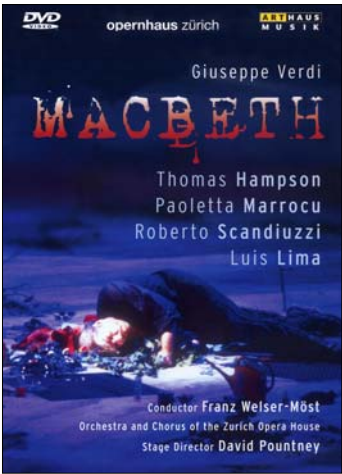
〈팔스타프〉는 오페라의 왕 베르디의 마지막 작품이자, 그의 작품으로는 매우 보기 드문 희극 오페라다. 늙은 통보기사 존 팔스타프의 좌충우돌과 그를 골려주는 주위 인물들의 소동이 어우러진 이 유쾌한 오페라는 노대가의 마지막 창작열을 녹여낸 위대한 음악적 정수를 보여준다. 불로냐 태생의 루제로 라이몬디는 20세기 후반의 이탈리아 베이스를 상징하는 대가수이다. 특히 베이스로 훈련받았지만 베이스의 대표 배역들을 마스터한 후 에는 바리톤까지 섭렵하여 에스카미요(카르멘), 스카르피아(토스카)에서도 최고의 가수가 되었다. 이런 위대한 베이스바리톤이 베르디 최후의 오페라이자 풍자적 희극인 〈팔스타프〉도 노래한다는 것은 지극히 예측가능한 일이다. 인생에 있어서도 달관의 경지에 오른 라이몬디는 팔스타프의 주책맞은 캐릭터를 맘껏 펼쳐 보인다. 스테파노 포다의 산뜻하고도 현대적인 무대미술도 매력적이다.

[2010년 Dynamic DVD 카탈로그 포함]



Arthaus DVD

www.arthaus-musik.com



Arthaus DVD 101 563

베르디: 맥베스

토마스 햄슨(맥베스), 파올레타 마로쿠(맥베스부인), 로베르토 스칸두치(반코), 루이스 flak(막두프) 외/
프란츠 벨저-모스트/ 취리히 오페라

토마스 햄슨의 개성적인 열연과 데이비드 파운트니의 창조적인 무대

국내 라이선스 제작으로 앞서 선보였던 2001년 취리히 오페라의 '맥베스' 프로덕션이 독일 Arthaus 제작의 수입완제품으로 다시 등장하였다. 셰익스피어의 문학세계에 대단히 몰입했었던 베르디는 '오텔로', '팔스타프' 등의 말년의 걸작들이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맥베스'를 통해 셰익스피어 작품의 음악화에 도전했었다. 강렬한 권력욕과 우유부단함을 견비했던 맥베스와 그를 능가하는 강렬한 야망의 소유자였던 맥베스부인의 흥망성쇠를 드라마틱하게 다룬 이 작품은 특히 맥베스부인이 펼치는 광란의 동유병 장면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천재적 감각의 오페라 연출가 데이비드 파운트니의 창조적인 무대와 토마스 햄슨의 다중인격적인 맥베스와 파올레타 마로쿠의 공격적인 열연을 담은 본 프로덕션은 셰익스피어의 고전을 기반으로 한 베르디의 이 초기 걸작을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끔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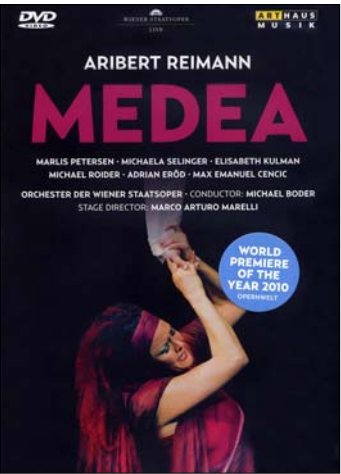
***박종호의 불멸의 오페라 1권 추천 영상물

[보조자료]

○ 베르디의 <맥베트>는 전성기 이전에 작곡된 비교적 초기 오페라임에도 그 음산한 힘으로 인해 아주 특별한 취급을 받는 작품이다.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이 전혀 배제된 채 셰익스피어 원작의 어두운 분위기를 재현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바리톤 토머스 햄슨은 1955년 6월, 미국 인디애나에서 태어난 전후 세대로서 미국 바리톤의 계보를 잇는 대표주자다. 비교적 늦게 성악에 입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무척 학구적으로 모든 일에 임하는 완벽주의자의 면모를 갖고 있어서 어떤 극장에서도 환영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성공 가도에는 여러 지휘자가 큰 기여를 했는데, 우선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는 1984년 취리히의 모차르트 사이클을 시작으로 풍부한 오페라 무대 경험을 쌓게 해 주었고, 만년의 레너드 번스타인은 자신의 말러 연주회에 이 젊은 바리톤을 자주 초청하여 이름을 알렸다.

○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오페라 연출가 데이비드 파운트니는 스코티시 오페라, 잉글리시 내셔널 오페라의 프로덕션 감독을 거쳐서 2003년부터는 호반 위의 오페라 축제에 유명한 브레겐츠 페스티벌의 책임자로 활약 중이다. 그 외에도 취리히 오페라, 빈 슈타츠포퍼, 바이에른 슈타츠포퍼 등의 유럽 최고의 오페라 극장들에서 자신의 프로덕션을 선보였으며, 프랑스 정부와 영국왕실로부터 각각 예술문학훈장과 CBE의 영예를 수여받았다.



Arthaus DVD 101 551

라이만: 메데아

마를리스 페테르센(메데아), 마카엘라 젤링거(크로이사), 아드리안 에뢰드(아손), 미카엘 로이더(크레온), 엘리자베트 쿨만(고라) 외/
미카엘 보더/ 빈 슈타츠포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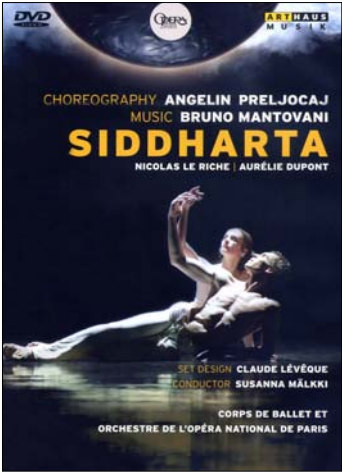
고대 그리스 최고의 악녀가 라이만의 오페라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다

메데아(메데이아)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최고의 악녀로 유명한 캐릭터다. 클로키스의 왕 아에테스의 딸인 메데아는 아름다운 외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흠모하는 아르고스호의 영웅 이아손을 돕기 위해 남동생을 찢어 죽일 정도의 잔인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후일 메데아는 아손(이아손)이 코린트의 공주 크로이스(글라우케)와 결혼하게 되자 크로이스와 자신과 아손 사이에 낳은 두 아이들을 죽임으로써 자신을 버린 아손에게 복수한다. 메데아의 이야기는 후일 여러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17세기 카발리를 필두로, 칼다라, 샤르팡티에, 케루비니, 마이어, 메르카단테, 미요 등이 이에 관한 오페라를 남겼는데, 그 중 케루비니의 작품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현존 최고의 독일 오페라 작곡가로 각광받고 있는 라이만이 이 대열에 합류하였다. 2010년 2월에 빈 슈타츠포퍼에서 초연된 오페라 '메데아'는 코린트 주류사회에서 배척당하는 이방인으로서의 메데아의 갈등과 아손에 의해 부당하게 강탈된 황금양털을 가장 적절한 장소인 델피의 신전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메데아의 노력에 집중함으로써, 과거 어느 관련 작품들에서보다 메데아를 긍정적으로 묘사하였다.

[보조자료]

○ 독일 작곡가 아리베르트 라이만은 1936년 베를린에서 태어났다.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작곡과 피아노를 배웠으며, 베를린 도이치 오퍼의 레페티퇴르로 처음 음악계에 입문했다. 초기에는 피아니스트로 활동했지만, 이후 작곡으로 방향을 바꿨다. 1978년 피셔디스카우의 위촉으로 완성한 오페라 '리어왕'이 크게 호평을 받으면서, 현존 독일 음악계를 대표하는 오페라 작곡가의 한 사람으로 부각되었다. 그 외의 주요 오페라들은 '유령소나타'(1984), '트로아데스'(1986), '다스 솔로스'(1992) 등이 있다.

○ 오페라의 내용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메데아의 여러 일화들 중에서 코린트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메데아와 아손은 아손의 삼촌인 이올코스 왕 펠리아스를 죽이고 코린트로 피신한다. 하지만 코린트는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코린트의 왕 크레온은 아손에게 자신의 딸 크로이사와 결혼할 경우 코린트에 남을 수 있음을 제안하고 메데아에게 애정이 식은 아손은 이를 받아들인다. 이에 분노한 메데아는 크로이사는 물론 동행하기를 거부하는 자신의 두 아이들까지도 죽여 버린다. 이후 메데아는 아손이 강탈했던 황금양털을 델피의 신전으로 되가져간다.



Arthaus DVD 101 557

발레 <싯다르타>

안무: 앙줄랭 프렐조카주, 음악: 브뤼노 만토바니, 파리 국립 오페라 발레단

육체의 아름다움을 통해 표현된 석가모니의 구도의 길

알바니아계의 프랑스 무용가 겸 안무가 앙줄랭 프렐조카주는 현재 유럽 현대무용계에서 가장 큰 화제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름이다. <로미오와 줄리엣>를 폭력적으로 재해석하여 충격을 주었는가 하면 <공원>에서는 20세기 안무가가 만든 파드되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감격적인 아름다움과 에로티시즘을, 앞서 DVD로 소개되었던 <메데아>와 <MC/14-22>에서는 각각 잔혹한 비속살인과 최후의 만찬의 모티프를 감각적으로 표현했었다. 그의 최신 안무작이자 2010년 파리 바스티유 극장에서의 실황인 <싯다르타>는 프렐조카주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파리 국립오페라 발레단이 공연한 것으로, 제목 그대로 왕자로서의 영예와 아름다운 아내 요수다라를 포기하고 구도의 길을 떠나는 싯다르타가 여러 유혹을 이겨내고 마침내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강렬한 안무를 통해 표현한 작품이다. 아방가르드 계열의 클래식에 락음악과도 같은 강렬한 전자기타 리프를 접목한 프랑스의 젊은 작곡가 브뤼노 만토바니의 음악도 대단히 인상적이다.

[보조자료]

○ 안줄랭 프렐조카주(1957~)는 알바니아계 프랑스 안무가로 다양한 현대 무용 경력을 거친 후에 1984년부터 자신의 발레단을 이끌면서 본격적인 안무 작업에 들어갔다.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안무가들, 즉 고전발레의 제한에서 벗어나고자 고민했던 거장들을 존경하고 또 벤치마킹하면서 끊임 없는 논란의 소재가 되는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 이전작인 12명의 남성무용수들을 위한 <MC/14-22>가 복음서의 나오는 예수의 최후의 만찬의 모티프를 활용한 기독교적인 색채의 작품인데 반하여, 신작 <싯다르타>는 석가모니의 구도과정을 아름다운 육체미학을 통해 표현한 불교적 색채의 작품인 점이 흥미롭다.

○ 발레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악과 죽음의 위협을 받는 가련한 민중의 고통을 목격한 싯다르타는 아버지인 왕과 아름다운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촌 아난다와 함께 구도의 길을 나선다. 여러 구도자들과의 만남과 갖가지 유혹의 과정을 거친 뒤 싯다르타는 해탈의 경지에 오른다. 깨달은 자가 된 싯다르타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어 약한 세력을 굴복시키고, 그의 아버지들 포함한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작품이 마무리된다.



Arthaus DVD 107 215



Arthaus DVD 107 213



Arthaus DVD 101 063

도니제티: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연주: 카를로 펠리체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지휘: 파트리크 푸르니에

오페라 뉴지로부터 ‘국제무대에서 가장 뜨거운 테너 중의 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2002년 독일 에코 클래식 상 ‘올해의 가수’로 선정되었던 마르첼로 알바레스가 등장하고, 루치아역에는 스테파니아 본파델리라는 탁월한 경력의 소유자가 등장한다. 문제는 그녀가 바로 이탈리아에서 루치아 역으로 성공의 발판을 마련한 가수라는 점이다. 무대감독은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것 보다는 장면에 필요한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끌어내는데 주력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기존의 무대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2003년 제노아의 카를로 페니체 극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인데,정열적이고 환상적인 루치아의 가장 훌륭한 재현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구, TDK DVUS-OPLDIL 와 동일 영상물)

차이코프스키: 예프게니 오네긴

특별한 추억의 지휘자, 마크 에를레르의 2000년 볼쇼이 실황

마크 에를레르는 볼쇼이 가극장과 서울 시향의 예술감독직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2000년 여름에는 볼쇼이 오페라를 서울에 불려와 차이코프스키의 <스페이드의 여왕>을 공연하기도 했던 거장이다. 2002년4월 서울 시향의 리허설 도중에 쓰러져 향년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푸시킨의 극시를 원작으로 한 <예프게니 오네긴>은 러시아 오페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작품이다. 이 DVD는 에를레르가 2000년 서울 공연을 마치고 그해 10월에 볼쇼이 무대에 올린 실황을 담았다. 볼쇼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었다는 1944년의 무대를 재현 하였는데 이미 무성한 초대형 나무를 배치한 1막이라든가 러시아 대귀족의 실제 연회장보다도 넓찍하고 웅장한 3막은 감히 볼쇼이가 아니면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다. 오늘날 볼쇼이 오페라를 대표하는 블라디미르 레드킨(오네긴), 마리아 가브릴로바(타치아나), 엘레나 노박(올가), 니콜라이 바스코프(렌스키)가 총출동한 <예프게니 오네긴>의 본바닥 명연이다.

(구, TDK DVUS-OPEON 와 동일 영상물)

카를로스 클라이버: 리허설과 퍼포먼스

베버: 마탄의 사수 서곡, 슈트라우스: 박쥐 서곡

카를로스 클라이버/ 슈투트가르트 방송 교향악단

완벽주의자로서의 클라이버의 일면을 보여주는 리허설과 공연 실황

지난 2004년 7월 6일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던 지휘자 카를로스 클라이버는 20세기를 빛낸 가장 위대한 지휘자의 한 사람으로 전 세계 음악팬들의 기억 속에 여전히 기억되고 있다. 베버의 ‘마탄의 사수’ 서곡과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박쥐’ 서곡에 대한 리허설과 공연실황을 담고 있는 본 DVD는 클라이버가 유럽 음악계의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무렵인 1970년에 남독일방송(SDR)의 TV 프로그램인 ‘Bei der Arbeit beobachtet’을 위해 S방송국 소속 오케스트라인 Sudfunk-Sinfonieorchester(현 슈투트가르트 SWR 심포니)를 지휘한 영상을 담고 있다. 두 서곡 모두 클라이버가 즐겨 지휘했던 짧은 작품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장시간에 걸쳐서 꼼꼼하게 작품 전체를 해부해나가는 리허설 과정은 완벽주의자로서의 클라이버의 일면을 다시금 떠올리게 만든다. 흑백화면에 모노 오디오채널의 영상이지만, 클라이버 팬들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기록일 것이다.



Arthaus DVD 107 211

뮤지컬 <키스 미 케이트>

웨스트엔드에서 화려하게 리바이벌된 브로드웨이 최고의 인기 뮤지컬

1949년 토니상의 베스트 뮤지컬의 영예를 안았던 'Kiss Me Kate'는 1948년부터 1951년까지 무려 1,077회나 연속 공연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작품으로, 뮤지컬 작곡가 폴 콜터의 대표작이자 20세기 중반 브로드웨이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지금까지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과 2010년에 공연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던 작품이다. 극중극의 독특한 액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극 중에서 공연되는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말괄량이 길들이기'에 기초하였다. 이혼한 한 쌍의 배우들이 뮤지컬 버전의 '말괄량이 길들이기'에 함께 출연하면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을 다룬 작품이다. 휴머니즘, 사랑, 갈등, 유머가 넘치는 드라마는 물론 아름다운 음악과 춤, 화려한 의상과 무대 등 즐길 거리들로 가득하다. 본 영상은 2002년 런던 웨스트엔드의 빅토리아 팰리스 극장에서의 공연을 옮긴 것으로, 브로드웨이를 대표하는 두 뮤지컬스타인 브렌트 바렛과 레이첼 요크가 주연을 맡았다.

[보조자료]

○ 셰익스피어의 '말괄량이 길들이기'를 기초로 콜퍼터가 완성하여 1948년 12월 2일 필라델피아의 슈베르트극장에서 초연된 'Kiss Me Kate'는 같은 해 12월 30일 뉴욕 뉴 센츨리극장에서의 본격적인 공연을 시작으로 1965년까지 20여 년간 미국 전역과 영국 등지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코미디 뮤지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1949년 토니상 작품상, 의상상 수상, 브로드웨이에서 1951년 7월 28일까지 1,077일의 장기 공연 기록, 영국 콜리세움 극장에서 1951년부터 이듬해 2월까지 400일 공연 등 수많은 수상과 기록을 세우며 브로드웨이 코미디 뮤지컬의 자존심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 'Kiss Me Kate'는 이혼한 한 쌍의 배우들이 뮤지컬로 만든 '말괄량이 길들이기'에 함께 출연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었다. '말괄량이 길들이기'가 공연되고 있는 무대와 배우들의 공간인 분장실에서 벌어지는 두 가지 이야기를 기본 줄거리로 다룬 극중극형식으로 르네상스 시대의 화려한 의상과 1950년대의 현대적 분위기가 공존하는 독특한 작품이다.



EuroArts DVD

www.euroarts.com



Euroarts DVD 2051968

Open Air
2002년 베를린 필하모닉의 발트뷔네콘서트

바딤 레핀(vn)/ 마리스 안손스/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귀에 익은 클래식 애청곡들로 채워진 한여름 밤의 음악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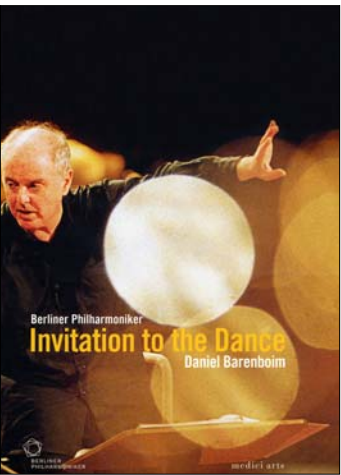
매년 여름 베를린 필은 베를린 외곽 숲속의 야외공연장에서 수많은 시민들과 더불어 성대한 공개 콘서트로 한 시즌을 마무리한다. 빈 필의 신년음악회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사랑받고 있는 발트뷔네콘서트(Waldbühnekonzert)가 바로 그것이다. 2002년의 콘세르트는 각각 바이올린과 지휘 양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거장들인 바딤 레핀과 마리스 안손스가 너무나도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클래식 소품들로 베를린 시민들을 즐겁게 만들었다. 레핀은 비에냐프스키의 '폴로네이즈', 차이코프스키의 '멜로디', 크라이슬러의 '중국의 북', 파가니니의 초절기교 소품인 '베네치아의 사육제'와 더불어 영화 '여인의 향기'로 너무나 유명한 가르델의 탱고 'Por una cabeza'를 감각적으로 들려주며, 그 외에도 시벨리우스의 '슬픈 왈츠',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비제의 '파랑돌',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중 파드슈 등과 함께 김연준의 '애가'도 프로그램에 함께 포함되었다.

Invitation to the Dance
2001년 베를린 필하모닉의 송년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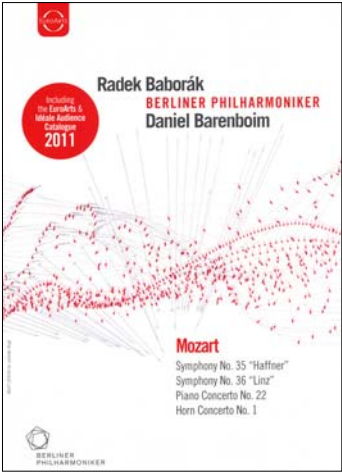
다니엘 바렌보임(pf & cond)/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다니엘 바렌보임과 베를린 필이 펼치는 클래식 댄스뮤직의 진수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봉을 잡은 2001년의 베를린 필 송년음악회는 '무대회의 초대'(Invitation to the Dance)라는 타이틀 아래 바흐에서 현대에 이르는 300년 가까운 클래식 댄스뮤직의 변천사를 베를린 필 특유의 화려하고도 정교한 연주로 펼쳐 나간다. 바흐의 관현악모음곡 3번의 가보트로 시작된 이 콘서트는 모차르트의 미뉴에트, 차이코프스키의 꽃의 왈츠, 드보르작의 슬라브춤 Op.48-8, 시벨리우스의 슬픈 왈츠, 슈트라우스의 황제왈츠, 브람스의 헝가리춤곡 1번과 같은 너무나도 친근한 애청곡들을 뿐만 아니라 베를린 필의 박력 넘치는 연주력이 빛나는 코다이의 갈란타 춤곡, 바렌보임의 절묘한 리듬 감각이 돋보이는 'A fuego lento' 'Tico Tico' 등의 이국적인 라틴 소품들 등등의 매력적인 프로그램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Euroarts DVD 2051849



Euroarts DVD 2020208

2011년 유로아츠 샘플러
베를린 필의 2006년 유로파콘체르트 실황

라덱 바보라크(hrn)/ 다니엘 바렌보임(pf, cond)/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11년 유로아츠 카탈로그 + 2006년 유로파콘체르트 실황

카탈로그와 함께 제공되는 유로아츠의 2011년 샘플러는 지난 2006년 프라하에서 펼쳐졌던 베를린 필하모닉의 유로파콘체르트 실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매년 자신들의 창립 기념일인 5월 1일에 유럽의 명소들을 순회하며 펼쳐지는 유로파콘체르트는 발트뷔네 콘체르트와 더불어 베를린 필의 가장 중요한 음악이벤트로 자리 잡았다. 과거 모차르트 자신의 지휘로 오페라 '돈 조반니'가 초연된 장소이기도한 체코의 유서 깊은 Estates Theatre에서 펼쳐졌던 2006년의 콘서트는 모차르트의 작품들만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작곡가의 중요한 두 후기 교향곡들인 35번 '하프너'와 36번 '린츠', 이날 지휘를 맡았던 다니엘 바렌보임이 피아노 독주를 겸했던 피아노협주곡 22번, 그리고 당시 베를린 필의 수석이었던 이 시대 최고의 호른 비르투오조 라덱 바보라크의 명인기가 빛나는 호른협주곡 1번이 이날 한 자리에서 연주되었다.

【 수록곡 】

Wolfgan Amadeus Mozart

Symphony No.35 in D major, K.385 "Haffner"

Piano Concerto No.22 in E flat major, K.482

Horn Concerto No.1 in D major, K.412/514 IK.386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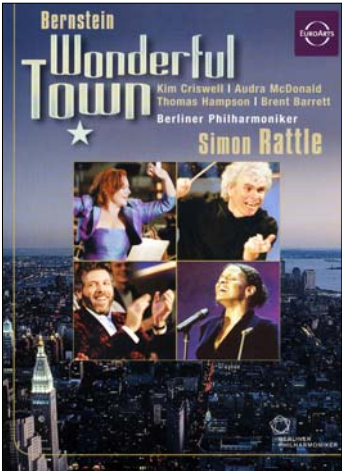
Symphony No.36 in C major, K.425 "Linz"

번스타인: 원더풀 타운

김 크리스웰, 오드라 맥도날드, 토마스 햄슨, 브렌트 바렛/ 유러피언 보이시즈/
사이먼 래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댄스 홀로 돌변한 필하모니, 춤바람 난 베를린 필 단원들

2002년 베를린 필하모닉의 질베스터콘체르트(송년음악회) 실황. 번스타인의 대표 뮤지컬의 하나인 '원더풀 타운'의 하이라이트들을 약간의 액션을 곁들인 콘서트 스타일로 무대에 올렸다. 브로드웨이의 대표스타들인 김 크리스웰, 오드라 맥도날드, 브렌트 바렛에 정상급 바리톤 토마스 햄슨이 가세한 최고의 성악출연진과 더불어 재즈와 클래식 양 분야 모두에서 각광받고 있는 피아니스트인 웨인 마샬과 더 라세르 색소폰 퀸텟이 베를린 필에 힘을 보탤다. 크로스오버 계열에서 특히 두각을 드러내는 사이먼 래틀의 넘치는 끼와 세련된 감각은 이 공연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클래식의 성전인 필하모니에서도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흥겨움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양코르로 다시 연주된 '콩가!'에서 거대한 댄스 홀로 돌변한 필하모니의 장관과 함께, 연주와 춤을 동시에 하느라 정신없는 베를린 필 단원들의 모습이 만면에 웃음을 머금게 만들 것이다.



Euroarts DVD 2052298



ICA (International Classical Artists) DV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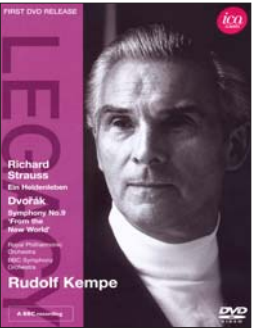
www.icartists.co.uk

ICA (International Classical Artists)는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세계 굴지의 클래식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회사입니다. 마리스 안손스, 예사 페카 살로넨, 미초코 우치다 등의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매니지먼트를 맡았으며, 현재도 유리 바슈메트, 하르트무트 헨헨, 켄트 나가노, 마이클 탈슨-토마스, 안토니 비트, 니콜라이 데미덴코, 백건우, 다니엘 호프, 보로딘 퀸텟, 프랑소와 를루 등의 일급 아티스트들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음반 및 영상물 제작 쪽으로도 사업영역을 확장하였으며, 과거 거장들의 희귀 기록들을 발굴하는 Legacy 시리즈와 현재 활동 중인 아티스트들의 최신 실황을 담은 Live 시리즈를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의 1차 DVD 발매분 7종(Legacy 시리즈 5종, Live 시리즈 2종)을 소개합니다.

ICA Legacy Series

ICA의 Legacy 시리즈는 과거 BBC 등의 클래식 전문 TV채널들을 통해 방영되었던 명연주자들의 역사적인 공연실황들을 DVD로 다시 선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진들의 정성어린 복원을 통해 녹화시기에 비해 준수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일부 DVD의 경우 원 소스 자체의 열화로 인한 화면 이상(화면에 검은 줄무늬가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소개되는 다섯 타이틀은 모두 최초로 DVD로 발매되는 영상들입니다.



ICA DVD ICAD5009

R. 슈트라우스: 영웅의 생애

드보르작: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루돌프 켐페/ 로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독일의 정통파 거장 루돌프 켐페의 만년을 담은 소중한 영상물

1910년 드레스덴에서 태어나 1976년 취리히에서 세상을 떠난 독일의 정통파 마에스트로 루돌프 켐페. 그의 만년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한 본 DVD는 이 거장의 선 굵은 연주를 사랑하는 많은 애호가들에게 놓칠 수 없는 값진 선물이 될 것이다. 그는 토마스 비첨의 천거를 통해 1961년부터 1975년까지 로알 필하모닉의 수장으로 맹활약했으며, 1976년에는 BBC 심포니의 수석지휘자로 임명되었지만, 애석하게도 바로 그 해에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본 DVD는 그가 이들 두 오케스트라와 함께 했던 두 차례의 프롬스 콘서트 실황을 옮긴 것이다. 1974년 8월 28일 로알 필하모닉을 지휘한 '영웅의 생애'는 특히 R. 슈트라우스의 스페셜리스트로 이름 높았던 이 지휘자의 역량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호쾌한 명연이며, 이듬해 8월 29일 BBC 심포니를 지휘한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역시 런던의 청중들과 비평가들의 호평을 이끌어내었던 수연이다.

[4:3 Colour, LPCM Mono]

슈베르트: 피아노 트리오 1,2번 (D.898, D.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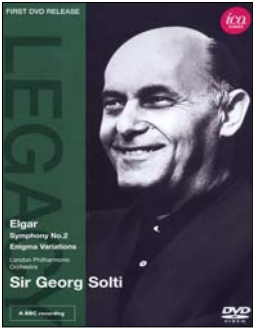
보자르 트리오



ICA DVD ICAD5010

피아노 트리오의 대명사 보자르 트리오의 황금기를 영상으로 만나다

보자르 트리오 1955년 데뷔 이후 마지막 연주회를 가졌던 2008년까지 반세기가 넘는 긴 기간 동안 피아노 삼중주 장르의 대명사와 같은 연주단체로 수많은 실내악 애호가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참여했었기에 우리에게 더 한층 친근하게 기억되는 단체이기도 하다. 본 DVD에는 이들이 에든버러 시그넷 라이브러리라는 같은 장소에서 10년의 시간차를 두고 연주했던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번(1987년 녹화)과 2번(1977년 녹화)이 함께 수록되었다. 작곡가 특유의 풍부한 서정과 아름다운 선율미를 세 악기의 적절한 밸런스를 통해 아름답게 그려낸 연주로, 특히 2번의 2악장은 여러 영화 및 CF의 배경음악으로 자주 인용되었던 친숙한 작품이기도 하다. 이들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메나힘 프레스러(피아노), 이시도로 코헨(바이올린), 버나드 그린하우스(첼로)가 호흡을 맞췄던 시기의 소중한 기록들이다. [4:3 Colour, LPCM Mono]



ICA DVD ICAD5011

엘가: 교향곡 2번, 수수께끼 변주곡

게오르그 솔티/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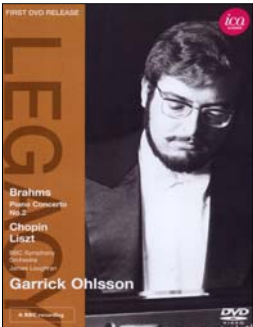
게오르그 솔티, 엘가의 양대 관현악 걸작을 지휘하다

헝가리 출신의 거장 게오르그 솔티와 가장 영국적인 작곡가인 에드워드 엘가의 관현악은 일견 어색해 보이는 조합이지만, 1970년대 솔티는 영국 음악계로부터 가장 걸출한 엘가 스페셜리스트로 인정받았었다. 1971년 솔티가 런던 필과 함께 데카를 통해 발매했던 작곡가의 교향곡 1번은 작곡가 자신의 연주에 비견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모두들 이들의 교향곡 2번이 이어지길 기대했다. 1975년 2월 13일과 16일 솔티는 로얄 페스티벌 홀에서 교향곡 2번을 두 차례 연주했고, 그 사이에 데카를 위한 레코딩 세션까지도 완료하였다. 바로 13일의 공연실황이 본 DVD에 수록되었다. 이 엘가 교향곡 시리즈의 큰 성공에 힘입어 솔티는 1979년 런던 필의 상임지휘자에 취임하게 되는데, 1979년 9월 25일에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그의 취임 콘서트 실황인 '수수께끼 변주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원 소스 자체의 열화로 인한 화면 이상(화면에 검은 줄 무늬가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등)이 있음을 알립니다. [4:3 Colour, LPCM Mono]

브람스: 피아노협주곡 2번/ 쇼팽: 스케르초 1번, 영웅폴로네이즈

리스트: 장송곡

게릭 올슨(pf)/ 제임스 러프란/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ICA DVD ICAD5013

1970년 쇼팽 콩쿠르 우승자 개릭 올슨의 전성기를 담은 영상물

게릭 올슨은 1970년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미국 출신의 피아니스트다. 유달리 큰 손을 이용한 가공할만한 테크닉과 섬세함과 강렬함을 아우르는 폭 넓은 표현력으로 일세를 풍미했던 이 연주자의 활약상을 본 DVD를 통해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임스 러프란이 지휘하는 BBC 심포니가 반주를 맡았던 브람스의 피아노협주곡 2번은 1978년 7월 31일 로얄 알버트 홀에서 있었던 프롬스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교향곡에 육박하는 이 협주곡의 장대한 스케일을 당당하게 연출해나가는 올슨의 명인기가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1974년 TV 방영용으로 스튜디오에서 녹화된 쇼팽과 리스트의 피아노독주곡들의 영상이 함께 수록되었다. 쇼팽의 스케르초 1번과 영웅 폴로네이즈, 리스트의 장송곡(Funeralmarch)을 연주하였다. [4:3 Colour, LPCM Mono]

프랑크: 교향곡 D단조/ 바그너: 마이스터징거 관현악 발췌

[부록: 포레 -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모음곡]

샤를르 뮌슈/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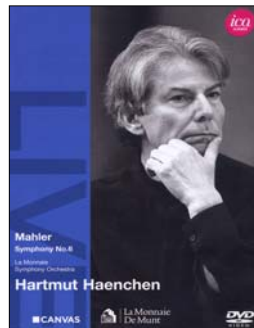
ICA DVD ICAD5015

프랑스의 위대한 거장 샤를르 뮌시의 모습을 담은 역사적인 기록들

프랑스의 거장 샤를르 뮌슈는 1891년 당시 독일령이었던 알자스 지방 스트라스부르에서 태어났다. 이러한 그의 배경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는 자국 프랑스의 음악 못지않게 베토벤, 브람스, 바그너 등의 독일 음악 쪽에서도 걸출한 활약상을 보여주었다. 그는 1949년 쿠베시초키의 후임으로 보스턴 심포니의 음악감독을 맡으면서 이 악단의 황금기를 이어나갔다. 본 DVD는 당시 보스턴 지역의 공영방송인 WGBH를 통해 방송되었던 보스턴 심포니의 콘서트 실황들을 수록한 것으로, 1960년 3월의 기록인 바그너 '마이스터징거' 관현악 하이라이트와 1961년 3월의 기록인 프랑크 교향곡을 함께 담았다. ICA의 기술진에 의해 정성껏 복원된 화면이지만, 당시 촬영기술의 한계로 인해 화면 상태가 열악한 편이다. 하지만 전설적인 거장의 지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는 감동은 각별하다. 1959년에 촬영된 포레의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모음곡이 보너스로 함께 수록되었다. [4:3 Colour, LPCM Mono] Diapason d'Or 수상 (2011년 2월호)

ICA Live Series

ICA의 Live 시리즈는 최근의 주목할 만한 콘서트 실황을 HD급 화면과 LPCM Stereo & DTS 5.1 Channel 오디오 포맷의 DVD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두 타이틀이 출시되었고, 앞으로 ICA 산하의 여러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최신 콘서트 실황이 이 시리즈를 통해 출시될 예정입니다.



ICA DVD ICAD5018

말러: 교향곡 6번 '비극적'

하르트무트 햐헨/ 라 모네 심포니 오케스트라

우수한 화질과 음향으로 감상하는 말러의 가장 암울한 교향곡

말러의 교향곡 6번은 1903년 여름부터 작곡이 시작되어 이듬해 5월에 작곡이 완료되었고, 1906년 5월에 에센에서 초연되었다. 당시 말러는 아내, 딸과 더불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교향곡은 작곡가 자신이 붙인 '비극적'이라는 표제에 걸맞은 암울하고도 격정적인 악상들로 가득 채워졌다. 이 작품은 무려 15종의 다양한 타악기들을 요구하는 방대하고도 색채적인 오케스트레이션으로도 유명하며, 특히 마지막 악장에 등장하는 나무 해머의 강타는 지금까지도 많은 말러리안들 사이에서 중요한 화두로 남아있다. 본 DVD는 말러의 교향곡과 바그너의 오페라 분야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드레스덴 출신의 독일의 중견 지휘자 하르트무트 햐헨이 벨기에 왕립 오페라 소속 악단인 라 모네 심포니를 지휘한 2009년 브뤼셀의 팔레 드 보자르에서의 콘서트 실황을 우수한 화질과 사운드로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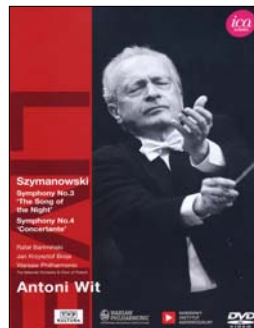
[16:9 Colour, LPCM Stereo, DTS 5.1] Diapason d'Or 수상 (2011년 3월호)

시마노프스키: 교향곡 3번 '밤의 노래', 교향곡 4번 '콘체르탄테'

라파우 바르틴스키(ie)/ 안 크시슈토프 브로아(pf)/ 안토니 비트/ 바르샤바 필과 합창단

최신 영상으로 만나는 시마노프스키의 대표 교향곡들

카를 시마노프스키는 20세기 초 폴란드 음악계를 대표하는 작곡가다. 초기에는 슈트라우스, 레거 등의 독일 후기낭만음악과 드뷔시의 인상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나, 점차 아랍 및 동양에 대한 자신의 기호와 보다 진보적인 표현법을 접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을 정립하였다. 본 DVD에는 그를 대표하는 두 편의 교향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테너 독창과 합창을 수반하는 교향곡 3번 '밤의 노래'는 페르시아의 시인 무하마드 루비의 시에서 영감을 받은 시비로운 분위기의 작품이며, 교향곡 4번 '콘체르탄테'는 제목 그대로 피아노협주곡의 외형을 갖춘 작품이다. 폴란드를 대표하는 지휘자이자 낙소스의 여러 음반들을 통해 최고의 시마노프스키 스페셜리스트로 인정받고 있는 안토니 비트가 바르샤바 필하모닉을 지휘한 2009년 11월의 실황으로, 우수한 화질과 음향, 그리고 완성도 높은 해석을 통해 시마노프스키의 음악세계를 접고자 하는 이들에게 훌륭한 선물이 될 것이다. [16:9 Colour, LPCM Stereo, DTS 5.1]



ICA DVD ICAD5017



C Major Entertainment DVD

www.cmajor-entertainment.com



C-Major DVD 704208

도니제티: 마리아 스투아르다

피오렌차 체돌린스(마리아), 소니아 가나시(엘리자베타), 호세 브로스(로베르토) 외/
파브리치오 마리아 카르미나티/ 베네치아 라 페니체 오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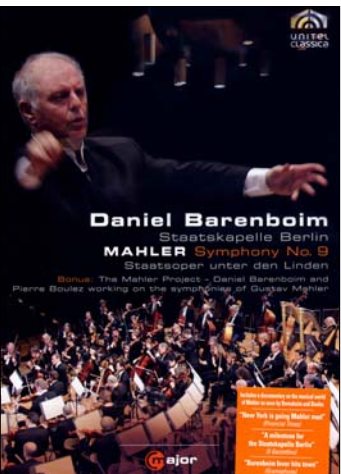
두 스타급 여성 성악가들의 불꽃 튀는 열연을 담은 최신 영상물

도니제티는 16세기 영국 튜더왕가의 여인들을 소재로 3편의 역사 오페라를 완성하였다. 헨리 8세의 두 번째 부인인 앤 불란을 주인공으로 <안나 볼레나>, 그의 딸인 엘리자베트 1세와 스코틀랜드의 폐여왕 매리 스튜어트의 갈등을 다룬 <마리아 스투아르다>, 만년의 엘리자베트 1세의 은밀한 사랑을 소재로 한 <로브레토 데버루>가 흔히 도니제티의 '여왕 3부작'이라고 불린다. 그 중 두 번째인 <마리아 스투아르다>는 전형적인 벨칸토 오페라로서 극적인 요소와 서정적인 매력을 겸비한 매력적인 아리아들과 벨런스가 뛰어난 중창(특히 2막 마지막 두 히로인의 경연은 이 오페라의 하이라이트다)이 조화를 이룬 수작이다. 본 영상은 2009년 4/5월 베네치아의 라 페니체 극장에서 있었던 최신 공연실황으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두 여성성악가 피오렌차 체돌린스와 소니아 가나시의 열창과 스페인 출신의 명테너 호세 브로스의 미성이 데니스 크리프의 산뜻하고도 기하학적인 무대를 배경으로 아름답게 펼쳐진다.

[보조자료]

○ 메리 스튜어트(1542~1587)는 태어나자마자 스코틀랜드 여왕의 신분이 되었지만 모친에게 섭정을 맡기고 어린 시절을 프랑스에서 보냈다. 프랑스 왕세자와 약혼했고 17세에는 프랑스 왕비가 되었다. 그러나 병약한 남편 프랑스수아 2세가 일찍 죽는 바람에 스코틀랜드로 돌아와 직접 통치를 하게 된다. 그러나 남자관계가 문제였다. 재혼한 헨리 스튜어트는 왕위를 노리는 무절제한 인물이었고 메리가 총애한 궁정음악가 리치오를 참살했다. 남편에 대한 기대를 접은 그녀는 유부남 보스웰 백작을 사랑했고 새 애인은 남편을 암살해 버렸다. 그런데도 보스웰 백작과 결혼한 바람에 신하는 물론 국민들까지 여왕의 문란한 사생활에 분노하여 등을 돌렸고 결국 왕위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간신히 영국으로 도망하여 엘리자베트 여왕의 보호를 받지만 가톨릭 세력의 지지를 받는 영국 왕위계승권자이기도 하다는 점 때문에 결국 처형당했다. 프리드리히 실러는 여기에 레이체스터 공과의 러브 스토리를 추가했는데 도니제티의 오페라는 실러의 극을 원작으로 삼았다.

○ 소프라노 피오렌차 체돌린스(1967~)는 1996년 파바로티 콩쿠르에서 우승한 후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드라마틱 소프라노로 활동 중인 스타 성악가다. 현재 바르바라 프리톨리, 파트리차 치오피 등과 함께 현재 이탈리아 오페라계의 중견 소프라노를 대표한다. 드라마티코로는 드물게 투명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연기력도 뛰어나다. 그동안 <아이다>, <토스카>등 소프라노에게 상당히 무거운 배역을 통해 스타덤에 올랐지만, 최근 들어 벨칸토 레퍼토리들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C-Major DVD 703708

말러: 교향곡 9번

보너스다큐멘터리 - 더 말러 프로젝트

다니엘 바렌보임/ 베를린 슈타츠크펠레

다니엘 바렌보임, 말러가 완성한 마지막 걸작 교향곡을 지휘하다

구스타프 말러의 탄생 150주년과 서거 100주기인 2010~2011 기간에 앞서서 베를린 슈타츠크펠레는 말러가 완성한 교향곡 전곡을 무대에 올리는 이른바 The Mahler Project를 가졌다. 악단의 음악감독인 다니엘 바렌보임이 홀수번호 교향곡을, 바렌보임과 절친한 관계이자 현존 최고의 말러 스페셜리스트의 한 사람인 피에르 블레즈가 짝수번호 교향곡을 각각 나누어 맡았었다. 본 영상은 프로젝트 중에서 2009년 4월 5일 베를린의 필하모니에서 있었던 교향곡 9번의 콘서트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최근 들어 말러에 광장한 열의를 보이고 있는 바렌보임의 탁월한 심미안을 뛰어난 화질과 음향을 통해 만날 수 있다. 감정 이입을 절제한 상태에서 이 교향곡의 순음악적인 아름다움을 담담하게 그려나가고 있는 바렌보임의 연출과 더불어 말러의 교향곡에 대한 바렌보임과 블레즈의 대화와 말러 프로젝트 진행 중의 몇몇 리허설 장면들을 함께 담은 22분 분량의 보너스 영상인 'The Mahler Project'가 함께 제공된다.



C-Major DVD 705408

베토벤: 장엄미사

크라시미라 스토야노바(sop)/ 엘리나 가란차(alt)/ 마이클 웨이트(te)/

프란츠 요제프 젤리히(bass)/ 드레스덴 슈타츠크펠레 합창단/

크리슈티안 틸레만/ 드레스덴 슈타츠크펠레

드레스덴 폭격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장엄' 그 자체의 장엄미사

2차 대전의 유럽 전선이 거의 막바지에 달했던 1945년 2월 드레스덴을 휩쓸었던 연합군의 융단폭격에 의해 25,000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다. 드레스덴 슈타츠크펠레는 1951년부터 매년 이 참혹한 비극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콘서트를 지속해오고 있다. 본 영상은 지난 2010년의 추모콘서트 실황을 담은 것으로, 2012년부터 드레스덴 슈타츠크펠레의 카펠마이스터를 맡을 예정인 크리슈티안 틸레만이 지휘를 맡았다. 여러 작곡가들의 레퀴엠들을 연주해왔던 예년과 달리 베토벤의 장엄미사를 택했는데, 장중하면서도 엄숙한 이 걸작의 속성은 추모콘서트의 분위기와 훌륭한 조화를 이룬다. 틸레만 특유의 장대한 스케일과 가란차를 비롯한 정상급 솔리스트들의 열창, 그리고 드레스덴 슈타츠크펠레의 질고 부드러운 사운드가 어우러진 연주 자체의 완성도도 대단하지만, 공연 이후에 박수를 생략하고 침묵으로 고인들을 추모하는 이 콘서트의 전통은 장엄미사의 경건함을 한층 더 감동적으로 부각시켜준다.



KBS 가 뉴 미디어 매체 사용자를 위한 'KBS Classic Library'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BS 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 공연정보를 비롯한 클래식 음악 1,000곡을 언제 어디서든 감상하고, KBS 1FM 방송을 실시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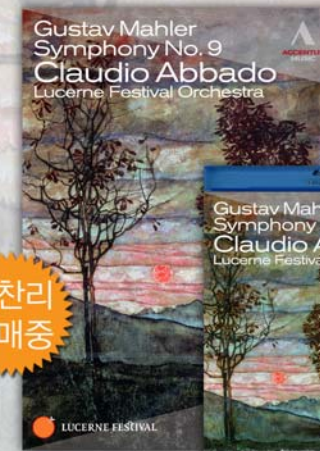
1. QR 코드 스캔 후, 자동연결
2. http://classic.kbs.co.kr 서비스 사이트로 이동
3. 애플 앱스토어, Tstore 에서 'KBS classic Library' 검색 후,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아이폰, 안드로이드 모두 지원됩니다.

노거장의 손끝으로 정성껏 빚어낸 감동의 말러 교향곡 9번

클라우디오 아바도 |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DVD ACC20214



Blu-ray ACC10214

절찬리
판매중

말러 애호가들이 학수고대했던 클라우디오 아바도/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말러 교향곡 9번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었다. 아바도가 로마에서 말러 유겐트오케스트라를 지휘했던 2004년의 동곡 실황도 호평을 받긴 했지만, 많은 아바도의 팬들과 말러리안들은 이 시대 최고의 솔리스트들이 포함된 명실상부한 슈퍼스타 오케스트라인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통해 이 감동적인 말러의 마지막 완성작을 감상하길 소망했을 것이다. 2010년 8월 루체른 KKL에서의 실황을 편집 수록한 본 영상물은 기대에 부응하는 감동적인 연주를 담고 있다. 달관의 경지를 보여주는 아바도의 얼굴과 손끝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적이며, 이 시대 최고의 관악 테크니션들이 정성껏 빚어낸 투명한 텍스처와 정교한 초절기교는 이 걸작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 * *

NAXOS RINGTONE (코드링) SERVICE

낙소스의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이제는 핸드폰으로 바로 컬러링(통화연결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필요없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TRACK

일반 코드링 (40초) 롱 코드링 (60초)

Vivaldi: The 4 Seasons Violin Concerto Op.8 No.3 Autumn - I. Allegro	##7170133	##7270133
Bolling: Baroque And Blue	##7170134	##7270134
Bolling: Javanaise	##7170135	##7270135
Bolling: Irlandaise	##7170136	##7270136
Bolling: Amoureuse	##7170137	##7270137
Bolling: Jazzy	##7170138	##7270138
Garner: Misty	##7170139	##7270139
Albeniz: Suite Espanola No.1 Op.47 - Cuba (스페인 모음곡 1번 - 쿠바)	##7170140	##7270140
Berlin: I'll see you in Cuba	##7170141	##7270141
Damare: Le Merle Blanc Op.161 (다마레: 하얀 티티새)	##7170142	##7270142
Faure: Berceuse Op.16 (포레: 자장가)	##7170143	##7270143
Piazzolla: Histoire Du Tango - Bordel 1900 (탱고의 역사 - 선술집)	##7170144	##7270144
Schubert: Piano Quintet in A Major, D.667 'Trout' - Theme with Variations - Allegro Giusto	##7170145	##7270145
Over The Rainbow	##7170146	##7270146
We'll Meet Again	##7170147	##7270147
La Mer	##7170148	##7270148
Williams: Star Wars - Main Title	##7170149	##7270149
Mr. Lee	##7170150	##7270150
Feaster: Sh-Boom	##7170151	##7270151
Berry: Maybelline	##7170152	##7270152

이용방법 (How to use) >>

곡의 코드링 입력 후 '통화' 누르기 ➡ ①미리듣기 ②구매 ③선물하기 ➡ 선택

예) '다마레: 하얀 티티새' 롱 컬러링(60초) 이용방법

##7270142 + 통화 _ 음성안내에 따라 번호 선택 후 구매.

SK Telecom 이용고객에 한하여 사용가능.

40초 - 1,200원
60초 - 1,300원



표지사진

틸레만, 베토벤 교향곡을
철저히 해부하다

<아울로스뉴스> 2011년 3월호

통권 제 47호 발행 : 2011년 3월 6일

발행인 : 임용욱

출력 : 좋은그림 인쇄 :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edia.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代)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